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축에서 거리를 가득 메운 퀴어축제 퍼레이드 행렬.



서울광장 맞은편 대한문 앞 광장에서 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 참석자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동성애 '퀴어축제'...사랑하지만 반대합니다

**서울광장 퀴어축제
 하나님 뜻, 자녀, 국가위해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
 반대국민대회 동시 개최**

2016 퀴어문화축제(이하 퀴어 축제)가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맞은편인 대한문 앞 광장과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일대에선 기독교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운집해 '퀴어축제 반대 국민

대회'를 개최했다. 1부 '교회 연합 기도회'와 2부 '생명·가정·효 페스티벌'로 진행된 국민대회는, 이따금씩 비가 내리는 중에도 참석자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기도했다. 이날 서울광장 일대에는 경찰들이 투입돼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지만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먼저 교회 연합 기도회는 식전 행사와 예배, 기도회로 이어졌다.

이영훈 목사(한기총 대표회장)는 대회를 통해 "동성애는 가정을 파괴하는 죄악이다. 우리는 그와 같은 동성애가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나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해야 한다. 그들이 동성애가 잘못임을 깨달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했다. 또 '사랑하지만 반대합니다'(롬 1:24~27)를 제목으로 설교한 소

강석 목사는 "동성애자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다.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보듬기를 원한다"며 "그러나 동성애 자체는 사랑할 수도 찬성할 수도 없다. 그것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고 했다. 소 목사는 "대한민국의 자유 국가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동성애자들을 처벌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것은, 많은 이들의 인권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그리고 왜 서울광장인가. 이곳은 대한민국의 상징적 장소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심사숙고했어야 했다. 자칫 동성애가 정상이라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8면에 계속]

“올랜드 테러 ‘극단적 이슬람’ 때문이라 언급 피한 오바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이번 테러는 극단적 이슬람때문이라고 정확히 표현해야 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2일 플로리다 주 올랜드에서 자행된 총격 테러가 '극단적 이슬람'(Radical Islam)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크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테러에 대해 테러범인 29세의 오마르 마틴이 인터넷에서 이슬람을 왜곡한 내용들에 영향을 받고 자행한 '자생적 극단주의'(Homegrown extremism)'테러라고 밝혔다. 그는 "극단적 이데올로기와 싸

우는 것은 해외에서 테러음모를 분쇄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테러범 마틴이 '알라를 위대하다'고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총기를 난사했고 911에 전화해 자신은 IS(이슬람국가)에 충성을 맹세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테러의 원인을 극단적 이데올로기라고 모호하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극단적 이슬람' 때문이라고 정확히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슬람 극단주의(Islamic extremism)나 극단적 이슬람(radical Islam)이라는 표현을 쓰면 IS와 같은 테러단체에 종교적 합법성을 주어 서구 대 이슬람 간의 전쟁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극단적 이슬람때문이라고 정확히 언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아메리칸포스트]

“올랜드 총격 테러는 끔찍한 비극”

美교계 지도자들...올랜드 테러에 애도 표명

지난 12일 새벽 50명의 사망 포함 1000여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플로리다 주 올랜드의 한 게이 나이트클럽에서 일어난 역사상 최악의 총격 테러에 대한 미국계 지도자들이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해 애도를 표했다. 이 사건은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로 IS를 추종해 벌인 테러이며 용의자는 현장에서 숨진 오마르 마틴(29) 코코아비치제일그리스도교회

클리프 우드럼 목사는 "올랜드 총기 사건의 비극은 끔찍하다. 무고한 이들을 죽이는 행위는 비이성적이며, 비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세인트제임스아프리카감리교회의 글렌 데임스 목사는 주일 설교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상처를 입었다. 이번 사건으로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전했다. 팜베이하우스의 켈 델가도 목사도 유가족과 희생자들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다. [관련기사 10면 참조]

“예수영생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관상기도회(금) 오후 8: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적성검사를 통한 진로 선택의 지름길
3-7-21 재능캠프
 재능 개발: 토렌스, 엘바인 Class
 (Verbal, Visual, Logical, Creative, Physical, Emotional)

USA Tel: (951) 383-5583
 Tel: (949) 329-8222
 Email: shelby.moon65@gmail.com
 www.Mylivdream.com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 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지원 마감일: 7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 는 6월 1일)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세미나를 마친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맨 앞줄 왼쪽으로부터)신인환·신응남 선교사 부부(네 번째), 김신숙 선교사(아홉 번째), 이기미 회장(열 번째)

“미주기독교한의사협회 영성세미나”

김신숙(이집트)·신인환(아프리카) 선교사의 생생한 선교현장 소식도 전해

미주기독교한의사협회(회장 이기미)가 12일(주일) 오후 정기 월례 예배를 드리고 영성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채동선 전도사(마가교회 담임)가 말씀을 전하고, 김신숙 선교사와 신인환·신응남 선교사 부부가 각각 현지 선교 상황을 설명했다.

채동선 전도사는 믿음(마21장) 주제의 말씀선포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사용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며 “그 믿음의 사람은 심령이 상하고 가난하며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인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빛이신 하나님께서 진리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줌을 알고 부르짖는 자이다”고 했다.

또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니 이후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나를 사용할 뿐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GMS 소속으로 현재 이집트에서 무슬림 복음화를 위해 활발한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신숙 선교사는 이집트가 무슬림 구원에 얼마나 중요한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또한 한의술(특히 침술)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지도 설명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한의사 선교사들이 이슬람권 복음화를 위해 나서주길 당부했다. 김신숙 선교사는 지난 1977년 최초 한인 선교사로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순교한 고 이연호 선교사의 사모로, 이

목사가 이루지 못한 무슬림권을 향한 선교행진을 대신 이뤄가고 있는 선교사이다.

아프리카 브룬디에서 한센인을 선교하고 있는 신인환·신응남 선교사 부부도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복음화의 중심지로 브룬디를 어떻게 세워 나가고 계시는지를 생생한 간증과 함께 보고했다. 신인환 선교사는 현재 간암 및 갑상선암과 투쟁하며 아프리카 선교에 올인하고 있는 선교사이다.

한편 한의술 봉사를 통해 지역 복음화에도 앞장서고 있는 미주기독교한의사협회는 매월 둘째 주일 오후 5시에 마가교회(2515 Beverly Blvd LA, CA 90057)에서 월례 정기예배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문의: 213-235-7169(이기미 회장) 이영인 기자



웨스턴양로보건센터에서 진행된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주최 소망교육 세미나가 열려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에 대한 인식변화 이해를 도왔다.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해요”

소망교육세미나 통해...아름다운 삶·아름다운 마무리 주제 강연

소망소사이어티에서는 제150차, 151차 소망교육세미나를 6일과 10일에 오렌지카운티와 LA에서 각각 개최했다.

제150차 소망교육세미나는 은혜한인교회 총권사회 초청으로 ‘총권사회 기도의 밤’에 유분자 이사장이 참석해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란 주제로 소망소사이어티의 사역을 소개하고 소망 우물물

알리면서 본인 삶의 여정을 간증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제151차 소망교육세미나는 LA의 웨스턴양로보건센터의 초청으로 개최됐다. 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이 세미나에서는 치매 예방을 위한 웃음치료를 주혜미 사역국장이 진행했고, 유분자 이사장이 메시지를 전하고 소망 우물물사역도 소개했다.

“이탈리아 베로나 국제합창대회 합창인 모집”

이탈리아 베로나에서 열리는 제30회 국제합창대회(Verona International Choral Competition)를 앞두고 남가주 지역 한인 합창인들의 참여가 기대된다. 대회는 내년 4월 19일~23일까지 열린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남가주 합창단은 전현미 지휘자가 이끈다. UCLA에서 작곡, UCLA 대학원에서 합창지휘를 공부한 그는 남가주 지역 여러 교회 성가대와 합창단에서 지휘했으며 지난 2013년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열린 국제 크리스마스 찬양제에도 50명으로 구성된 한인 합창단을 이끌고 참여한 바 있다.

이번 국제합창대회에서는 지정곡 1곡과 자유곡 3곡을 부르게 되며 주최 측의 대회 일정에는 이탈리아 현지에서의 연주와 이탈리아 합창단들과의 협연 기회도 포함돼 있다. 주최 측이 베로나 시와 베니스 시 관광도 제공한다. 총 여행 기간 2주 가운데 나머지 시간은 밀라노한인교회와 밀라노은혜교회에서 연주를 연다.

전 지휘자는 “유학생이나 성악 전공자들은 이번 대회는 경력을 쌓고 밀라노의 성악가들과 교류할 좋은 기회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디션은 오는 18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미성대학교(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에서 실시한다. 추가로 참가를 원하면 전 지휘자에게 연락한 후 오디션에 참여하면 된다.

*문의: 310-381-9835 김준형 기자



제 4회 '효 글짓기 그림 공모전'을 마치며 시상식이 진행됐다.

“기독교적 효(孝)정신을 널리 알리자”

효사랑선교회 주최 글짓기·그림 공모전 시상식

효사랑선교회가 미주 한인사회에 '기독교적 효 정신'을 널리 알리고자 매년 실시하는 '효 글짓기 그림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11일 홀러튼장로교회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70명의 수상자가 참석해 기쁨을 누렸다.

글짓기 대상은 12학년 박예원양, 그림 대상은 2학년 레야 김양이 수상해 노트북 컴퓨터를 상품으로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영 김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이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상장을 수여했다. CTS어린이합창단과 딜리버러스 앙상블도 참여해 축하했다.

이 선교회 대표 김영찬 목사는

“성경적 효는 신앙의 중심”이라며 “우리 후손들에게 바른 신앙유산으로 성경적 효를 물려 주자”고 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가”였으며 심사는 글짓기는 임영호 목사(미주한인기독교문인협회 전 회장), 그림은 안병성 화백(중현선교회교회장로)이 맡았다.

SAS 인가컨설팅 I-20신청, 선교회, 연구소, 직업학교, 종교특례대학, 일반대학 설립/인가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하나님의 구원 계획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단 9:24)

특별 성경세미나

미주 목회자 및 사역자를 위한

일시: 6월 30일(목)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소: 한미장로교회 (담임 이운영목사)
929 S Westlake Ave, Los Angeles, CA 90006

솔로몬대학교와 임마누엘선교회 주관으로 능력의 종 라흐채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구원계획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6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회비 무료, 점심을 제공하오니 선착순 100명으로 초청합니다. 부디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구약에 걸쳐 로마서 8장 9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이 되라"



초청강사: 라흐채 목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저자



백지영 목사
솔로몬대학교 총장

연락처 (323)708-9191 (c)
(213)380-7755 (o)
(213)381-7755

강사이력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 미국테네코 석유회사 근무
- 미국 휴스턴 신학교
- 미국 베다니 신학교 석사과정 수료
- 미국 베다니 신학교 박사과정 수료
- 미국 베다니 신학교 신학박사(Ph.D)
- 현 뉴욕만민제자교회 담임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주소:P.O.Box 610179 Bayside, NY 11361
Email: gpscenter2014@gmail.com

주관: 솔로몬대학교, 임마누엘선교회
후원: 우리복음방송 AM1230, 미주국민일보, 크리스천비전신문, 기독교일보, CHTV1888, 크리스천헤럴드, 미주크리스천신문

남가주벤엘교회 오병익 담임목사

“복음으로 초청하고 사명자로 세우는 행복한 목회”

“목회는 행복하고 살 맛 나는 일”이라고 말하는 오병익 목사. 그가 2년 전에 개척한 남가주벤엘교회는 당시 20명에서 현재 150명으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그는 “큰 교회가 아닌 건강한 교회를 꿈꾼다”고 강조한다.

행복한 목회에 신바람난 남가주 벤엘교회 담임 오병익 목사. 그에게도 시련은 있었다. 1990년에 코로나 지역에 교회를 한번 개척했다가 세리토스로 이전하며 상당히 성장했지만 타 교회와의 통합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고 목회를 내려놓았다. 오 목사는 “목회에는 좋은 때도 있었지만 힘들 때도 있었다. 평생 이렇게 목회하다가 나부터 죽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목회를 내려놓고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변신해 소위 ‘돈 버는 법’을 배웠고 상당한 부를 얻게 됐다. 이후 자신의 모교인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교수이자 학생처장으로 후학을 양성했다. 그러다 다시 자신의 원래 자리인 ‘목회’로 돌아오게 된다. 이번에는 행복한 목회였다. 오 목사는 “부산 풍성한교회의 두 날개 프로그램에 관해 듣고 두 눈이 뜨였다”고 말했다. 그가 이 프로그램에서 주목한 것은 말씀과 성령, 축제의 대예배와 친밀한 소그룹, 전도와 목양 등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함께 주일에

배를 드리고 소그룹에서 말씀과 삶을 나누는 것, 온 성도들이 전도하고 목양하는 리더가 되는 것이다. 영성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성도가 가족처럼 교제하는, 아니 가족 공동체가 되어가는 모델이었다. 그는 남가주벤엘교회에 관해 ‘전도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라고 정의한다. 이 교회는 봄에는 구빈 초청 축제, 가을에는 행복 나눔 축제를 열어 전도한다. 지난 5월에 개최한 구빈 축제에서는 새신자 80명이 참석했다. 그가 강조하는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 승리”다. “거지 나사로처럼 살다가 죽는 인생 말고, 살아서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죽어서는 나사로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죽어서는 천국 가는 것이 행복이다. 우리 한인에게서 부자가 나오고 땅도 차지하고 미국 대통령도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도는 승리의 복음을 통해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복을 다 주셨는데 타락하면서

잃어버렸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회복했다면 이제는 누려야 한다.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으로 나아온 사람들은 사명자로 초청한다. 그가 과거 목회가 힘들었던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양 때 때문이었다.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가진 깊은 관심이 오히려 그의 마음에 낙심과 좌절을 가져다준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는 성도들을 ‘평생을 함께 달려갈 사명자로’ 대하고 있다. 목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서 함께 목양하는 사람으로 시각이 전환됐다.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이기에 행복하다는 것이다. 오 목사는 “우리 교회에 오면 살 맛이 난다. 복음을 듣고 함께 삶 가운데 사역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 그는 “우리 교회에 오면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고 말할 정도로 자부심이 크다. 끝으로 그는 “복음을 누리고 전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함께하는 행복한 목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길 바란다”며 환하게 웃었다.



남가주벤엘교회 오병익 담임목사.

한편 오병익 목사는 성결대학교 교회협의회 회장도 역임한 바 있다. * 문의: 714-886-2562 * 주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90620 김준형 기자

“성(性)은 우리 위해 창조된 것, 우리가 창조한 것 아냐”

87세 獨老학자... 전 세계 누비며 동성애 반대



피터 바이어하우스 박사.

세계적 선교학자인 피터 바이어 하우스 박사(튀빙겐대 은퇴교수, 독일개신교회백공동체신학회 회장)는 요즘 국내외를 다니며 ‘젠더 이데올로기(사상)’에 대한 저항운동(Widersteht der Gender-Ideologie)에 열심이다. 1974년 로잔회의에 주요 연사로 나서고, 1974년과 1980년 서울에서 열린 엑스플로74와 세계복음화대회에 참석하는 등 복음주의 선교 운동을 위해 적극 활동하던 그

가, 어떻게 87세의 나이에 전 세계를 다니며 ‘반동성애 운동’을 하게 됐을까. “지금은 ‘젠더 이데올로기’가 이슈이므로, 그에 대해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남성 중심으로 이뤄져 온 것이 사실이지만, ‘젠더 이데올로기’는 그것에 대한 항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항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이어하우스 박사는 최근 15년

째 한국을 찾아 여러 교회와 기관을 다니며 유럽과 미국에서 기승을 부리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민낯을 폭로했다. “성(性)은 우리를 위해 창조된 것이지, 우리가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젠더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을 우려하는 주된 이유는,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동성애 문제는 한국에서도 최근 많은 갈등을 낳고 있다. 특히 11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던 ‘제16회 퀴어축제’와 관련, 많은 시민들

이 청소년에게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그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한국교회가 성경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목격한 경험이 없는 이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수 있는데, 교회가 분명하게 성경적 견해와 요지를 설명하고 도와야 할 것입니다.” 또 “동성애는 잘못된 선택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책망해야 하고, 그러한 내적 성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아님을 분명히 말해 주고 포기하도록 충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대웅 기자

Hyundai advertisement for Puente Hills Hyundai, featuring a car and contact information for Charlie Jung.

Advertisement for Saevit Acupuncture Clinic, featuring a doctor's photo and contact information.

Large advertisement for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featuring a table of courses for the 2016 summer semester and information about a Diaconia service seminar.



캘리포니아 바이블 컨퍼런스가 페퍼다인대학교에서 3일간 열렸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제2회 바이블컨퍼런스 개최...성경강해 통해 말씀 속으로!

캘리포니아 바이블 컨퍼런스가 9일~11일까지 2박 3일간 페퍼다인대학교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주제 아래 열렸다.

제2회를 맞이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3시간으로 구성된 5편의 성경강해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이 말씀 속으로 빠져들었다.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 담임)가 ‘요한복음과 그리스도,’ 김선익 목사(미주서부장교회 담임)가 ‘레위기과 그리스도,’ 지용

주 목사(시라큐스한인교회 담임)가 ‘사사기와 그리스도,’ 이상명 총장(미주장신대)이 ‘누가복음과 그리스도,’ 고태형 목사(선한목자교회 담임)가 ‘야고보서·유다서와 그리스도’란 주제로 각각 강해했다.

개회예배에서는 노진준 목사(한길교회 담임)가, 폐회예배에서는 권태산 목사가 각각 설교했다.

컨퍼런스 기간 LA사랑의교회

EM을 맡고 있는 존 여 목사가 어린이 성경 강해를 진행했다.

행사를 주관한 Global Media & IT (GMTI)의 켈 안 선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과 힘, 생명력이 있다.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각 지역 교회가 회복, 부흥되고 지역, 나라,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초석이 되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준형 기자



생명의 전화가 창립 18주년을 맞이해 감사예배를 드렸다.

“생명의 전화 창립18주년 감사예배 드려”

LA 생명의 전화가 창립 18주년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11일 한미장로교회(담임 이운영 목사)에서 드렸다. 생명의 전화는 213-480-0691, 866-365-0691 전화번호를 1년 365일 오후 3시부터 새벽 5시까지 열어놓고 한인 동포들의 애환을 위로해 주고 있다.

대표 박다윗 목사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에 섞여 살면서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나 절망하는 동포들을 전화 상담을 통해 붙들어주고 상처를 싸매어주는 일을 하고 있다”면서 “고독한 인생길을 살아가며 절망하는 비신자들이 인생 모든 문제

의 해답이고 열쇠가 되는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헌신하고 있다”고 했다. 또 그는 “18년을 하루같이 전화기 앞에 앉아서 동포들의 한을 위로하기 위해 자리를 지켜온 헌신적 상담봉사원들을 치하하고 싶다”고 했다.

이 행사를 기념하며 영 김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 에릭 가세티 LA 시장, 이기철 LA 총영사, 제임스 안 LA 한인회장이 축사를 보내왔다. 강신권 남가주협회장, 엄규서 남가주목사회장은 직접 행사장을 방문해 축사를 전했다. 또 영 김 의원이 수여하는 감사장이 박다윗

목사에게 전달됐으며, 박다윗 목사는 300시간을 봉사한 스티브 임, 존 정 씨에게 생명의 전화가 수여하는 감사장과 메달을 전달했다.

이 행사에서는 제18기 상담봉사원이기도 한 김관진 목사가 기도했고 지윤성 목사(안디옥장로교회 담임)가 “공활히 여기는 자의 복”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용덕 목사(운영위원)가 헌금기도했으며 강영창 목사(남가주원로목사회 증경 회장)가 축도했다. 이 행사는 제19기 훈련을 받은 9명 상담봉사원의 수료식도 겸해 진행됐다.

김준형 기자

오네시모의 독백

김영언 저



20. 아담을 원망한다

예수를 믿든 신의 백성이 되든,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목구멍으로 낫길 음식을 위해 처절히 일해야 하는 것에는 달라질 것이 없다. 고상한 예술과 죽음 뒤의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제아무리 세계 최고의 제국 로마라 할지라도 아주 일부 사람에게만 허락된 큰 사치일 뿐이다. 신이 선택한 바울도 살아생전 그의 생계를 위해서 텐트를 만들어야 했다. 물론 사역후반기에는 그를 경제적으로 후원하는 유력인들이 생겨, 투옥되었을 때를 제외하면 전도와 선교업무를 풀타임으로 할 수 있게는 되었지만.

나 역시 해방노예로서 골로새의 변호사 이레니우스를 대신하여 그의 귀찮은 서류 일을 해내야 한다. 요즘 들어 이레니우스의 평판이 나빠지고 있다. 그의 일이 줄어들면서 내 수입도 줄고 있다. 걱정하던 아내는 이제 겨우 육아에서 해방된 얼마 안되는 시간을 써서 물건을 사고팔아 푼돈을 벌기 시작했다. 고백하건대 나의 기도는, 예수의 도가 더욱 잘 전해지도록 바랄 때보다, 부부가 하는 일의 형편이 나아져 미래 걱정을 덜

게 해달라고 신에게 간구할 때 더욱 절실하다.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기적은 살아생전 제자들이 제일 많이 얘기한 예수의 기적이었다. 그럴만도 하지. 그 많은 사람이 먹을 것도 없이 구원의 소식을 찾다가 광야에서 경험한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이었겠는가. 지분을 뚫고 친구의 병상을 예수에게로 내린 친구들의 이야기도 결국은 인간에게 있어 실제적인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보여준다.

그러나 인간의 모습으로 와 살고간 신은, 그의 아담에 대한 저주로 평생 땀을 흘려야만 하는 인간의 비루한 현실을 보고 불쌍히 여겼을 뿐, 그 고통을 근본적으로 견어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썩어져 가는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라 가르쳤다.

인생은 그렇다면 미래의 해방을 바라며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는 나그네길이란 말인가. 단지 그 나그네가 도착할 고향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조금 평안할 뿐인 것인가. <계속>

기평연 주최 제36차 교계연합 체육대회

“6월 26일(토) 개최...참가교회 접수 중”

기독교평신도연합회(회장 윤우경 집사, 이하 기평연) 주최 제36차 교계연합 체육대회가 열린다.

이 체육대회는 6.25 전쟁을 상기하며 지역 교회가 함께 운동으로 친목하며 연합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해마다 6월 25일 전후에 기평연에서 개최하고 있다.

선수 참여 인원이 부족한 교회들은 2~3개의 교회가 연합하여 참여할 수 있다.

▲대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일시: 6월 26일(토)

- 장소: 세리토스밸리크리스천 하이스쿨
- 주소: 17700 Dumont Ave, Cerritos, CA 90703)
- 등록비: 1개 종목 참가시 100불, 2개 종목 이상 참가시 200불
- 상품: 우승기, 우승 트로피, 기타 경품 준비
- 종목: 배구, 족구, 줄다리기, 어린이 달리기, 발야구, 종합 릴레이 400미터, 어린이 사생대회
- 점심: 참가단체 개별 준비
- 등록 문의: 213-500-5449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지시명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elcome to a better world

모든 사용자를 만족시키는 업무 효율의 혁신



KONICA MINOLTA bizhub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최고의 인쇄 품질과 획기적인 비용절감



Green M. Wild IMAGE SYSTEMS

Sales Representative : Eric Kim
GreenMWild@Gmail.com
TEL : 213 705 7778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Used printers trade in & purchasing

bizhub C554e / C454e / C364e / C284e / C224e

- C554e Colour B&W 55/55 ppm
- C454e Colour B&W 45/45 ppm
- C364e Colour B&W 36/36 ppm
- C284e Colour B&W 28/28 ppm
- C224e Colour B&W 22/22 ppm
- Dual Scan ADF 160 ppm Duplex
- Dual Scan ADF 80 ppm Simplex
- USB Print
- Colour Internet Fax
- Mobile Support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디모데후서 3장 10절 - 17절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 그 목적의 가장 핵심은 죽어서 천국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느냐, 누가 가봤느냐"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자신이 아직도 천국에 대해서 믿어지지 아니하는 어떤 의심 같은 회의가 있다면 그 인생은 아직도 성령에 이끌리는 신앙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이후 사도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심령들에게 권세와 능력으로 깨닫게 하시고, 체험도 주시고 감동하시어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거듭나게 되고, 이제 영적인 내세 소망으로 하늘 나라를 바라보는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꾸어 주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육신에 어떤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재산을 빼앗기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 고문을 당하고 죽인다고 총칼로 위협을 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붙들고 가꾸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지도록 우리를 사로잡고 감동감화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들을 때는 그 말씀에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서 아멘은 부담 없이 했으나 돌아와서 세상살이, 자기 생활에 접어들면 금방 그 말씀은 간곳이 없고, 육신이 현실적인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불의와 죄악에 휩쓸리고 타협하고 그리고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온갖 죄악을 일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주일이 되면 오늘처럼 멀쩡하게 교회에 와 앉아 있습니다. 이런 생활을 계속 되풀이 한다면 그 인생에게 하나님을 향한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결국은 실패를 되풀이하다가 지옥 가서 후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약 4만 8천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5만 2천개쯤 있었는데 그동안에 약 4천개의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교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교회라면 절대로 문을 닫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목적을 위하여 사람의 방법으로 잘못 시작 했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 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일을 온전케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구원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루스드라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에

앉아있고, 걸어 본적이 없는 나면서 앉은뱅이된 자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신세를 비판하면서 불구된 앉은뱅이로 인하여 자기 인생은 비참하게 됐다고 항상 불만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바울의 설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복음의 비밀인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몸은 불구가 돼서 앉은뱅이지만 영혼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얻겠다는 기대감이 자꾸만 부풀어 오를 때 설교를 하던 사도바울이 영감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보였습니다.

설교를 하다가 중단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손짓하면서 "네 발로 일어서서 걸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다리가 펴지면서 별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거기에 설교 듣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사도바울의 전도 설교를 통하여 앉은뱅이가 바울이 선포한 말씀대로 별떡 일어나 뛰어다니게 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구원을 위해 계속 역사하시고 계심이 믿어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사도바울의 설교를 비방하고 대적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죽이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서 도망을 가야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 같은 입장에서 외국 교회에서 부흥회 해주고 그 교회가 성령으로 회개하고 거듭나서 바로 서게 되면 은혜가 참만하고 사랑이 뜨겁고 목자와 양떼가, 양떼와 양떼가 새 힘을 얻고 일어서서 결속된 모습으로 다시 새 출발 하는 부흥의 추세,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여 쓰시는 역사입니다.

그런 가운데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부자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되 세상살이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육신이 좀 힘들고 괴롭더라도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소망을 포기할 수 없어서, 매를 맞아가면서도 믿고, 재산 다 빼앗기고도 믿고, 유치장에 끌려가서 갇히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예수 안믿겠다는 소리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를 놓칠 수 없어서, 이것이 진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가꾸어주신 믿음입니다.

믿음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적인 타락한 이성의 결단으로 예수나 믿어

보자는 것과,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집중적인 역사를 하셔서 그 인간의 의지를 성령이 꺾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성령이 집중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안 믿어 안 믿어 하다가 성령께 점령당하고 사로잡히고 나니까 성령의 감동에 의한 깨우침이 '아! 이것이 진리구나'하고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디모데후서 3장 10절~11절을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함과 믿음과 오래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꾀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예수님 안에서 더 온전한 믿음, 성령이 충만하고, 순수한 영적 체질 신앙으로 믿음 지켜 살기를 힘쓰는 사람일수록 세상으로부터 더 큰 환난과 대적, 핍박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 곧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남을 속이기도 하면서 자기도 속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14절 말씀처럼 너는 진리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고 합니다. 확신한 일이란 헬라어로 '에피스토테스'로 믿어지는 믿음의 생활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이단이 어떤 교리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도 끄덕도 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아주 확고부동해서 절대로 동요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믿음을 교리적인 말로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증거해 보일수도 있지만, 그 보다는 여기서 '에피스토테스'라는 말의 뜻은 내가 믿어지는 대로 네 믿음의 진실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15~16절에서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을 헬라어로 '데오푸뉴스토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시해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록하게 하셨느냐 하면, 죄인들이 영적인 교훈을 받아 진리를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고 회개해서 바른 사람, 신자, 성도가 되고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온전케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령으로 자기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지금도 교회에서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일에 온전히 쓰임 받을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AM1310 기쁜소리방송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월요일 오후 5시 / 하이라이 현시시간 오후 5시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Special Price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100% 천연성분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40여 년간 당뇨 연구를 해온 대한민국 대표과학자로 한국인 최초로 미국연방 정부 지원을 받아 당뇨 신약개발을 위해 FDA 2차 임상을 진행하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 재향군인병원 수석연구원 세계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등재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6개월 이상 복용하시면 췌장 베타 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하는데 PRO-Z GOLD가 해결해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 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유지에 그쳤으나 PRO-Z GOLD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며,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 내 몸에서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게 하는 당뇨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솔루션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억제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입니다.



송해선행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토브 성경 연구

Tov Bible Study



강신권 목사

- 히브리식 사고 : 3통 사고
- 히브리식 체현 : 5특체현으로 성경 원전 해석
- 현재 : 요한계시록 특강(매주 수요일 7:30pm)
- 강사 : 강신권 목사
- 장소 : WBPC 세계성경장로교회

Tel(562)761-5242
Tel(213)739-0403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양로병원 노인들을 위한 찬송가 경연대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장애우사랑교회에서 21년째 양로병원 봉사를 하다보니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차매에서 벗어나고 외로움에서 이기기 위해 매일 찬송가를 암송함으로 할 일이 있다는 소망을 드리기 위한 찬양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사오니, 이 대회를 빛나게 하실 심사위원들, 봉사자 분들을 초청하오니 바쁘신 시간을 나누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소 : 중앙양로병원
시간 : 2016년 6월 18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 가주 연방하원의원 Miguel Santiago, 봉사자들 감사장 증정
 -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상품을 드립니다.
- 상금 후원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L,C,D

협찬

나성열린문교회 박현성 목사,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
나성동산교회 박영천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
LA사랑의교회 김기섭 목사, LA임마누엘교회 최순길 목사
나침반교회 민경엽목사, 마동환 변호사 그룹
모던테크 김종기 사장, 팔각순대, 남원골 추어탕, 뉴욕제과

후원 남가주교회협의회, 남가주 목사협의회, 기독교보

장애우사랑교회

연락처 : (213)705-0404 / Fax:(213)351-0955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픽업가능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Players Tour 12~14살, 18홀, 1~2명 모집
- 피아노반주 가능한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D.D.)
현 '제일좋은 예닮교회' 담임목사

• 다문화선교(6)

울어야 산다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선택 받은 백성이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며 다문화, 다민족으로서 눈물의 시간을 보냈다.

혹자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하는 의문점을 가진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른 채, 왜 그토록 고달픈 노예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대장간에서 풀무를 연단하듯 가장 닳고, 작고, 비천한 자로 만들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계획과 섭리가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계획은 출애굽기 2장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출애굽기 3:9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의 의미는 바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외롭고 쓸쓸한 자로서의 삶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생활하며 경험했던 눈물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명하게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멸시하거나 푸대접해서 그들을 더 슬프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명령하셨다.

이 명령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이 애굽에서 지낸 400년의 다문화, 다민족으로 이방 나라에서 지내면서 겪었던 자신들의 고

통을 생각하며,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의미가 숨어져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400년의 시간 속에서 흘렸던 눈물을 뒤돌아보며 나그네 된 자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돌보아야 함을 명령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우리 인생의 삶도 때때로 울어야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 암치료법 전문 이병욱 박사의 저서 '울어야 산다' 라는 책에서는 말하기를 "눈물은 약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 병욱 교수는 말하기를 일반인은 물론 신체적인 아픔과 정신적인 고통에서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처방은 "울어야 한다" 라는 처방전이라고 한다.

마음속에 존재하는 분노, 화, 미움, 슬픔, 이 모든 것들이 없을 수 없으며 그것들을 마음속에 쌓아두지 말고 뱉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눈물이라는 것이다.

그렇다. 신앙의 선상에서 이스라엘 민족들도 외국인으로 압제와 억울함을 당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울고 또 울었던

400년의 시간을 보냈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고국을 떠나 미국이라는 이민사회에서 많은 아픔과 서러움으로 울고 또 울었던 시간을 보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가슴이 메마르고, 우리의 눈에 눈물이 메말라버린 듯하다.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 흘렸던 것이 언제인가?

주님이 베푸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인가요? 내 눈에 눈물이 말랐다는 것은 그만큼 내 영성의 샘이 메말랐다는 증거가 아닐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과거 속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울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기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했다. 눈물을 흘리며 슬픔의 골짜기를 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목말라 했었다.

그렇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눈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처방전이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아픔을 통해 우리는 나 자신 뿐 아니라 나와 같이 아파하고 슬픔에 젖어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돌아보며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 주위를 돌아보자. 그리고 이방인로서 이 땅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창세기 11장 6절)

집중의 지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새벽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집중하는 지혜를 배운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업을 맡기셨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시작해서 완성하기까지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했다. 성벽 재건을 시작한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끝냈다(느 6:15).

지도자에게는 언제나 과업이 주어진다. 과업이 없는 지도자는 없다. 지도자의 역량은 그가 성취한 과업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과업을 성취할 수 있을까? 과업을 성취하는 최상의 전략은 집중이다.

집중은 초점 맞추기이다. 집중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며,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집중하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집중을 잘하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할 것과 집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에너지를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를 분별해야 한다. 사람의 자원이나 능력은 무한하지 않다. 그런 까닭에 자신이 가진 자원과 능력을 집중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또 부족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났다. 또 그의 일을 방해하는 산발랏과 도비야와 같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비웃고, 그를 모함하고, 그가 하는 일을 멈추도록 하기 위해 많은 공격을 시도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음모를 파악하는 데 탁월했다. 그는 탁월한 분별력으로 대적들의 공격을 잘 방어했다. 하지만 그는 대적들에게 집중하지 않았다. 그는 대적들을 방어하긴 했지만 그들을 공격하지는 않았다. 그는 대적들에게 그의 에너지와 자원을 낭비하

지 않았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 집중의 지혜를 몇 가지로 배울 수 있다.

첫째, 그는 과업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했다. 과업을 성취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했다.

둘째, 그는 과업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시작했다. 그는 대적들을 의식했지만 그의 눈길은 항상 하나님을 향했다. 그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그의 억울함을 탄원했다. 그의 초점은 하나님을 향해 맞추어져 있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에게 영향을 받게 된다. 대적을 늘 바라보면 대적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대적이 커보이게 된다.

반면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게 된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대적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생이란 초점 맞추기이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은 영향을 받게 된다.

셋째,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과업에 집중했다. 대적들은 그가 하는 일을 방해했다. 대적들이 원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멈추게 하는 것이었다.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과업에 집중하지 않고 대적들과의 싸움에 집중했다면 과업을 단시일 내에 성취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문

제에 집중하지 않고 해결책에 집중했다. 불가능에 집중하지 않고 가능에 집중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위험이 아닌 기회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장애물을 만날 때면 장애물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오히려 장애물을 환영하고, 장애물을 친구로 삼았다. 그리함으로 장애물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는 장애물에 집중하지 않고 과업 성취에 집중했다.

넷째,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들에게 집중했다. 느헤미야는 그를 괴롭히는 대적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도와 과업을 성취하는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함께 일하는 유다 백성들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의 안전과 복지에 집중했다. 그는 대적들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힘이 되어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과업을 성취하는 것보다 사람이 더욱 소중함을 알았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추진하는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본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업을 성취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기뻐하신다. 과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과업을 성취하는 것을 폄하해서는 안 되지만 과업보다 소중한 것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임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과업은 사람들을 통해 성취되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인생 여정에서 누구나 대적을 만난다. 장애물을 만난다. 하지만 대적과 장애물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과 과업에 집중하라.

우리 함께 집중의 지혜를 배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과업을 성취하도록 하자.

제2회 미주 목회자 사역세미나

“일은 중단할 수 있어도 받은 사명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일시 : 2016년 8월 20일 오전 8시 ~ 오후 4시 30분

대상 : 이민교회 목회자, 개척 준비하시는 분, 사역지를 찾아 기도하는 신학생

참가비 : \$20불 (사역을 쉬고 계시거나 목회를 준비중인 분 면제)

장소 : 사랑의 빛 선교교회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주강사

김기섭 목사 (LA사랑의교회)
부목사는 소중한 사역이다



주강사

이승종 목사 (몽골대학교 재단이사장)
목회자의 사명



김경렬 목사
(산타모니카 한인교회)
캠퍼스사역 헌신이 아니라 희생이다



김송식 목사
(SBC 교회개척코디네이터)
교회개척과 등록



민승기 목사
(OC교회협의회 회장)
내가 겪은 이민목회 30년



정충일 목사
(사랑제일교회)
디지털 목회



Rev. Esau
(Church on pearl)
다문화사역, 푸드뱅크



이희문 목사
(LA 기쁨의교회)
전도하는 교회



신상원 목사
(미주합동대학신학대학원 교무처장)
교단의 필요성



김영찬 목사
(효사랑선교회)
실버사역



Rev. Feinstein, Stephen
(육군소령)
군목사역



Rev. Choi, Joseph
(현 육군대위 및 병의원목)
원목사역

**군목 원목 강의 예약 필요
오후 10개중 2개 선택수강**

연락처 : Tel (213)800-1825

주최 : US 채플린 연구소 주관 : BLUE Ministry

후원 : ECA 한인연합회, OC 교회협의회, 기독일보



예정통합 남북한선교교통일위원회와 굿타이딩스가 함께 개최한 통일 심포지움에서 여성 탈북민 사역자들이 발표해 이목을 끌었다.

“탈북민 신학 정립 필요하다”

굿타이딩스 '통일로 가는 길 제5차 심포지움' 개최...여성 탈북민 사역자들 발표

예정통합 총회 남북한선교교통일 위원회가 주최하고 굿타이딩스가 주관한 '통일로 가는 길 제5차 심포지움'이 13일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다.

"화해와 포용: 북한복음화 - 북한향민(탈북민) 목회자에게 듣는다"란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는 또 오로지 여성사역자들만 발표해 이목을 끌었다.

박예영 전도사(웨슬리신학대학원)는 "북향민 신앙체험을 통한 북한복음화(탈북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체험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탈북민 선교의 짧은 역사로 인해 아직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탈북민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학문정립의 부재가 큰 것을 발견했다"면서 "탈북민 그리스도인들(또는 조금이라도 신앙적 체험이 있었던 탈북민)의 신앙체험을 통해 형성된 신학, 즉 '탈북민 신학' 정립의 시급성을 느꼈다"고 했다.

박 전도사는 "탈북민들은 아무리 한국에서 오래 살았다고 해도 체질 안에 북쪽 DNA를 고스란히 소유한 북쪽 사람들이며, 통일이후

남과 북의 가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전도자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며 "북한주민들이었던 탈북민들이 자기 고향(북한)을 떠나 또 다른 정체성을 갖고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오기까지 겪으며 형성된 신앙과 그 신앙으로 말미암은 신학의 자리는 통일이후 부딪히게 될, 그리고 같이 살아야 할 북한주민들을 미리 만나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라 했다.

"선교와 교육으로 북한 복음화"란 주제로 발표한 송혜연 목사(하나목양교회)는 "(북한사람들의) 문화와 생각, 그들의 가치관을 먼저 이해하고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란희 전도사(성은교회)는 "북향민 목회사역으로 본 북한 복음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안 전도사는 "한국에 정착하고 있는 2만 8천명 넘는 탈북민 중 70%가 기독교인"이라 했지만, "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실제 믿음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부족"하다며 이것이 한국교회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안 전도사는 "남한에 있는 탈북 전문사역자들에게 이곳에서부터

철저히 준비시켜 통일된 이후 북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미래의 지도자를 세우기야 하는 것이 남한교회가 해야 할 급선무"라 주장하고, "탈북평신도들은 자신의 모습을 반성해 믿음생활에 충성하면서 북한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깨달아 남북 7000만 민족 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더불어 "(한국교회) 탈북목회자 양성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교회가 보이는 지역교회와 보이지 않는 기독교 문화로서의 교회 밖 다양한 운동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각각의 발표에 대해 심주일 목사(장조교회) 장길 목사(세광중앙교회) 손정열 목사(성지에서순교교회)가 논찬자로 수고했다.

행사 전 예배에서는 강병만 목사(오도선교회)와 이성희 목사(예정통합 부총회장)가 각각 설교와 격려사를 전했다. 행사는 예정통합 남선교회전국연합회와 오도선교회가 공동후원했으며, 북한민목회자연합이 협력했다.

홍은혜 기자

“설교와 신앙의 5원칙”

민민목회 통해 깨우친...김진홍 목사의 목회 원칙



김진홍 목사
두레수도원 원장

한국교회 강단을 강화하고 목회자들의 설교를 돕는 덕연(德延)설교아카데미(원장 길자연 목사)가 최근 개원해 첫 학사 일정을 진행 중인 가운데, 13일

에는 김진홍 목사(두레수도원 원장)가 강사로 나서 자신이 설교와 신앙에 있어 지켜 온 5가지 원칙을 소개했다.

김진홍 목사는 먼저 "쉽게 하라"고 했다. 그는 "저는 철학을 공부했는데, 청계촌에서 민민목회를 하면서 넘마주이들에게 칸트와 하이데거를 인용하며 설교했더니 다 졸더라"며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예수님의 스타일로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예수님도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등 가까운 소재를 사용해 쉽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김 목사는 "그래서 교인들과 스킨십하면서 그들의 용어로 설교하기 시작했다. 책을 읽으면서도 교인들의 수준에 맞게 재해석하려 노력하게 됐다. 그랬더니 서로 신뢰가 쌓이고 기도제목을 공유할 수 있게 되더라"며 "그런데 시간이 지나 대학 교수들이나 대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을 해 보니, 그들도 쉬운 설교를 좋아하더라"고 했다.

그는 "제가 유교와 불교도 공부해 봤지만 복음만의 특수한 장점은 쉽고 간결하다는 것이다. 서민 대중에게 딱 맞는 것이 기독교"라며 "현대인들이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너무나 지쳐 있는데, 목회자들이 그런 면에서 안식의 복음으로 다시 다가가야 한다"고 했다.

둘째로는 "기쁘고 즐겁게 하라"는 것이다. 김 목사는 "헬라어 카

리스(χρῖστος)는 '은혜'와 '기쁨' 등의 뜻을 갖고 있다. 기쁜 것이 은혜받는 것이고 은혜받는 것이 기쁜 것"이라며 "요즘 목사들 중 석·박사학위를 받고 해외에서 공부한 이들은 많은데, 너무 지식에만 치중하는 것 같아 걱정되기도 한다. 물론 신학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준비 단계이고, 설교는 자신의 뜨거운 영적 체험에서, 뱃속에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로는 "깊이 있게 하라"는 것이다. 김 목사는 "쉽고 재미있어도 깊이가 없다면 만담에 불과하다. 설교에는 두 번 세 번 곱씹을수록 가슴에 닿는 깊이가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본문에 대한 묵상, 폭넓은 독서와 탄탄한 인문학적 기초, 많은 고민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넷째로는 "적용할 수 있게 하라"고 했다. 그는 "설교를 뜯어 뜯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항상 '현장'을 중요시한다"며 "제가 학문적인 과정을 많이 거치지 않았지만, 젊은 시절부터 현장에서 많은 체험을 했기에 교인들에게 잘 적용되는 설교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 다섯째로 "변화를 일으키라"는 것이다. 김 목사는 "제 설교를 듣고 변화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제일 기쁘다"면서 특히 자신이 세운 두레수도원과 숲속창의력 학교를 모델로 제시했다.

김진홍 목사는 "저는 신학교 2학년이던 30살 때부터 모든 설교를 직접 해 왔기에 그 과정에서 나름의 설교관과 노하우가 생겼다"며 "그런데 요즘 부목사들을 보면 아쉬운 것은 그들에게 설교를 할 기회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발전할 수 없기에, 부목사 생활을 5년 이상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류재광 기자

“서울광장 퀴어축제”

[관련기사 1면으로부터 계속]그런데 그는 "오늘 이곳에 모여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프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아파 이해하실 것"이라며 "가정이 무너지면 이 사회와 나라가 망할 것이기에, 더 이상 동성애를 조장해선 안 된다. 동성애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교회 보수를 대표하는 예정합동 총회(총회장 박무용 목

사) 산하 신학교인 총신대(총장 김영우 목사)가 11일 동성애 퀴어축제를 둘러싸고 학내 동성애 동아리 유무 논란에 휩싸이자 11일 퀴어축제가 진행되는 코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고, "본교에 존재하지도 않는 동성애 동아리가 마치 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터넷 상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전국교회를 미혹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겠다"면서 성명서도 발표했다.

11일 오전 11시 프레지던트 호텔

앞에서 열린 총신대의 동성애 반대 집회에는 안명환 재단이사장 대행과 김영우 총장을 비롯해 함영용 학부 부총장, 한전설 신대원장(부총장), 그리고 교수 및 직원, 최대로 총학생회장,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지로 퍼레이드에서 '총신대'의 이름이 박힌 깃발이 등장해 펼쳐졌다.

퀴어축제 한 참가자는 예수님 복장을 한 채 예수님의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왜곡한 내용의 4컷 만화를 들고 서이기도 했다.

퀴어축제를 바라보는 아이들 시

선 또한 금지 않았다. 자극적인 포스터가 난무하는 광장 앞을 지나던 아이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다.

살롬을 꾸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살롬나비)도 '서울시가 퀴어축제를 서울광장 사용을 허용한 것은 국가기관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어떤 어머니는 폴리스 라인 너머에서 "아들아 동성애 그만하자 제발!"이라는 피켓을 들고 애타는 심정을 호소했다.

또다른 시민은 (사)한국기독교

보수교단협의회에서 준비한 "여사사위 남자며느리 OUT"이라는 표어를 가슴에 붙이고 동성애에 대한 결사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퀴어축제로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관심이 커진 가운데, 13일 뉴욕제호텔에서는 '탈동성애 리더스포럼'과 '탈동성애인권청년포럼'이 연이어 열렸다.

이 두 포럼을 통해 동성애의 위험성을 강조,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며 탈동성애자들의 구원받을 통로 또한 봉쇄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알렸다.

김진영·박용국 기자

2016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및 ATS 정회원)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종합원
- 기독교학위(BA)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지역 가능
- 목회학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은 목사 71231407-469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 admissions@aeu.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ua.edu
 www.chongshinusu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I-20 발행/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땀과 눈물로써 심어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들 프라이어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오프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서울광장에서 쿼어축제(위)가 열리는 동안,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를 반대하는 국민대회(아래)가 대 한문 앞 광장과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일대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호모마니아의 끝없는 시도 '비정상적 정상화'

쿼어축제 통한 동성애 확산...시민들의 끈질긴 비판과 저항으로 막아야

지난 11일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광장에서는 어김없이 성소수자들의 쿼어축제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미성년자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서울광장에서는 축제 참가자들의 과도한 노출과 무분별한 음란물 유포가 버젓이 이뤄졌다. 낯뜨거운 성적 문구와 성기구들이 판매되었고, 금지되어야 할 주류 판매행위와 흡연행위도 방치되었다.

호모마니아들은 쿼어축제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억압에 대한 저항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행위가 이토록 성적인 분야에 치중돼야 하는지 모른다.

또한 그들이 평소 애어 어떤 성적 억압을 당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들이 당한다고 말하는 성적 억압이란 것도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와 가정의 질서를 위해 절제하고 있는 행위들이며 그들만의 독특한 성문화에 대한 비판 또한 보건상의 이유로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 억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주관적인 피해의식을 표출하는 행위를 통해 대다수의 시민에게 가해자의 굴레를 씌우며 오히려 건전한 성의식을 가진 시민들과 청소년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런 행위를 더 이상 서울광장을 내어주어서 안된다. 비정상적 정상화라는 말이 있다. 비정

상적인 행위가 암묵적 용인 하에 계속 누적되면 그 행위가 마치 정상적인 행위인 것처럼 사회에 뿌리는 내린다는 뜻이다

호모마니아들이 쿼어축제처럼 시민들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세력과 결탁하여 끊임없이 문화적 토양을 바꾸기 위해 도전하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영향력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시민들은 계속되는 호모마니아의 도전에 익숙해지거나 지쳐서는 안된다. 그들이 문화적 토양을 바꾸고 그 토양 위에 비정상적 정상으로 뿌리내리는 순간, 더 많은 비정상적 정상으로 인정하라는 요구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쿼어퍼레이드에서는 작년에 비해 참가자가 줄었고, 퍼레이드 차량에 꾸며진 자극적인 문구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호모마니아들이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를 의식한 것이다.

하지만 동성애법제화 반대운동도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좀더 긴 승부로 대비해야 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조롱과 비방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체성을 고민하는 성소수자들을 계속 끌어안을 수 있는 방법과 동성애반대운동이 문화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시도한다면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시도는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제공]



13일 새벽, 라이즈업 청소년들이 서울광장을 둘러싼 채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라이즈업 제공

“퀴어들이 떠난 자리에서 기도를”

라이즈업코리아 807대회 앞두고...13일 새벽, 서울광장서 아침기도회 시작

고요한 13일 새벽, 지난 11일 쿼어축제로 대혼란을 겪은 서울광장을 청소년들이 둘러쌌다. 이들은 55일 남은 라이즈업코리아 807대회를 위해 '아침기도회'를 시작한 라이즈업무브먼트의 청소년·청년들이다. 이들은 남은 55일간 매일 오전 6시 30분부터 30여 분간 서울광장 맞은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예정이다. 이날 기도회에 참석한 다음 세대들은 혼란스러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조용히, 간절하게 기도했다.

라이즈업워십밴드 이동호 선교사는 "쿼어축제가 있었던 자리에서, 한국교회와 이 땅의 다음 세대를 향한 중보기도가 다시 시작됐다"며 "대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영광의 역사를 기대하며 계속 기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쿼어축제가 열렸던 11일 오후, 서울 대치동 여의도순복음교회 강남성전에서서는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라이즈업 워십 6월 정기모임이 개최됐다.

이번 집회는 라이즈업코리아 807대회를 알리는 킥오프가 진행된 후 처음 열린 것이었다.

메시지를 전한 라이즈업무브먼트 대표 이동현 목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그의 심층 프레임 즉 가치관을 바꿔 준다는 것"이라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를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그의 마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심층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사람이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성향이 있다.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는 객관적인 자

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따라서 한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객관적 인지가 먼저로, 이를 위해 신을 들여다보는 '룩 인사이드(Look inside)'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동현 목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현상이 아닌 중심에 선 자들의 존재 변화가 먼저 일어나게 돼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드러내려는 노력보다 '빛이 되려는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며 "현재 한국교회에서 성도들의 열정과 에너지,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만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의 신앙은 세상 속에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진 기도회에서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약 2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했으며, 참석한 목회자와 사역자들은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했다. 이날은 특히 쿼어축제에 참석한 영혼들이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빛 되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길 간절히 기도했으며, 함께한 23개 교회와 대학 캠퍼스들의 기도제목을 함께 외치며 기도회를 마무리했다.

라이즈업코리아 807대회를 3주 앞두고 열린 7월 워십은 오는 7월 16일(토) 서울 이수역 방주교회(담임 반태효 목사)에서 '라이즈업데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라이즈업 사역자와 청소년들은 대회 개최를 알리기 위해 13일부터 수도권 지역 교회 방문에 돌입했다. 이번 807 대회에서도 각 교회 전도집회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투게더' 행사와 식전 행사 '청소년 페스티벌'을 마련했다.

이대용 기자

교회혁신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말-금)
점심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비점중학교 / 토요일-17와비몬트코너
주중새벽-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단시대를 깨닫기, 이단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령을 순종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 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제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 90019
T. (818) 983-9024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주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 목, 금)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 #203, LA, C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말-금)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한기형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일부방 투 오전 9:30-12:30
환어청년부 오후 1:30 아미나기도모임 수요일 10: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사가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 939-7323 / www.kwpcl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환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8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라의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말-금) 오전 6:0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 (213) 598-0191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말-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일양재예배(목요일) 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s.com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말-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함의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주일예배 오후 1: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00
토요일복된 모임 오전 11:00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키아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407 W. 6th St. #804, Los Angeles, CA 90020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39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월-토) (일-토) T. (213) 380-0071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말-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몸,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형 (정부 배넛 지원) 전담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 메디칼, 임신부 메디칼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요한 선교회
gkal44@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양재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말-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일-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 친. 초. 장. 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양재기도회 오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말-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양재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현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애가 삶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김범수 치과
General & Cosmetic Dentistry

Bryan Kim D.M.D.

김범수 치과

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T. (213) 389-0937, (213) 389-0938 F. (323) 735-1937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대표 **주해홍** 목사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에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경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주일학교 - 주일 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교회,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6:00 (토)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화 오후 7: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일에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 OT 월-금 오전 6:0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욱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중보기도회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수요예배 오후 7: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i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사우스 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이창민 담임목사

L.A. 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후 1:30
한어장년부 오후 2:15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망꿀까지 내 증인이 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전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EM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금요성령대행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F.(310) 530-8400/cornerstonetv.com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후 12:30
유년부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82-9191 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유년부 오전 11:00
EM 오후 1: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Awana 오후 8:00(금)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학받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천이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9:30
주일 3부 오전 11: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후 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회
주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사랑의빛선교회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EM/YOUTH 예배 오후 1:3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금)
금요예배(화-토) 오후 7:45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434) 229-6597 / cmc-12.com / yesuin2@gmail.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에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익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민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블리제틀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성경 집회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moldi St., Northridge, CA 91326

LA 예배터
주일(영성예배) 9:30am, 11:30am
수요(영성예배) 7:15pm
새벽예배 월-금 5:30am
1515 S. Santa Fe Ave., LA, CA 90021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기립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있는 이스트리버폴고등학교 졸업생들. ©케이아메리칸포스트

“주기도문 당당하게 암송한 美 고교 졸업생들”

무신론 단체의 압박으로 70년 전통 끊긴 데 맞서

학교 측이 졸업식 전통인 ‘주기도문 합창’을 금지하자, 이에 반발한 졸업생들이 주기도문을 깜짝 암송해 화제가 됐다.

오하이오 주 이스트리버폴에 위치한 이스트리버폴고등학교는 졸업식 때마다 합창단이 ‘주기도문(Lord’s Prayer)’을 부르는 전통을 70년째 이어 오고 있다.

올해에도 담당 음악교사는 졸업생으로 구성된 합창단과 함께 이를 준비했다. 그러나 미국 최대 무신론단체 ‘종교에서의자유재단’은 지난 5월 초 학교에 경고문을 보내 제재하고 나섰다.

지난해 졸업식에 참석했던 한 학부모가, 주기도문 합창에 불만을 품고 이 단체에 제보했던 것. 이들은 공립학교 졸업식에서 주기도문 합창을 하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 위반이라며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학교 이사회는 고심하다 소송을 우려해 이번 졸업식에서 주기도문 합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래리 윌턴 이사장은 “그 단체와 소송할 돈이 없다. 변호사를 고용하는 데 돈을 쓰느니 교사를 더 고용하는 것이 낫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반발을 불러왔다. 이 학교에서 18년 동안 음악교사로 활동하며 매년 졸업식 때마다 주기도문 합창을 지도해 온 리사 앤싱어는 “주기도문이 안 되면 헨델의 메시아, 모차르트의 레퀴엠 등 기독교적 내용의 중세음악도 다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최근 졸업식은 주기도문 합창을 뺀 채 진행됐다. 졸업식 가운을 입은 학생들은 학교 체육관에 앉았고, 하객들은 관중석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졸업생 대표로 인사말을 전하기 위해 연단에 선 조나단 몽고메리는 잠깐 침묵하더니 양손을 들어 올렸다. 순간, 앉아 있던 졸업생들이 기립하고 한목소리로 주기도문을 암송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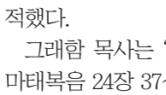
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학교 관계자들은 당황했고, 관중석에서 있던 하객들은 함께 주기도문을 암송하며 이 장면을 촬영했다. 학생들이 ‘아멘’ 하며 암송을 마치자, 하객들은 박수와 환호로 이들의 용기를 격려했다.

졸업생들은 오랜 전통인 ‘주기도문’ 합창을 하지 않기로 한 학교의 결정에 반발해, 주기도문 합창 대신 암송을 준비한 것이다.

졸업식장에서 이를 지켜본 한 학부모는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것을 위해 이렇게 해야 하는 현실이 가슴이 아프다”면서도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일어난 것을 보고 감격했다”고 전했다.

“노아의 심판 때 다가오고 있다”

빌리 그레함 목사...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때 다가오고 있어



빌리 그레함 목사 ©빌리그레함전도협회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는 최근 빌리 그레함 목사가 빌리그레함전도협회의 디시즌 매거진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 땅에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그레함 목사는 창세기 6장 5절을 인용해 “노아의 시대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고 지적했다.

그레함 목사는 “홍수에 대한 언급은 마태복음 24장 37~39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상의 종말이 정말 일어날 것 인지대 대해서는 알 방법이 없다” 그러나 “종말의 때가 오고 있음을 보이는 몇 개의 징조가 있다. 예를 들면, 탐욕, 죄, 음행, 이기심, 하나님을 버리는 현상, 부정직과 교만 등이 있다”면서 “종말의 도래에 대한 정확한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노아의 때가 지상에 도래할 것이며, 우리의 구원의 방주-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끔찍하고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그레함 목사는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고 이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게 된다”면서 “당신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마주할 심판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레함 목사는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고 이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게 된다”면서 “당신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마주할 심판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레함 목사는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고 이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게 된다”면서 “당신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마주할 심판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레함 목사는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고 이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게 된다”면서 “당신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마주할 심판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레함 목사는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고 이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게 된다”면서 “당신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마주할 심판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강혜진 기자

“올랜드 총격 테러 돕기 나선 인근교회”

유가족과 희생자 위해...헌혈 등 피해자 돕기 나서

플로리다 주 올랜드 게이나이트클럽 총기난사 사건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해, 인근 교회 교인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델라니침례교회(Delaney Baptist Church)의 트로이 피플스(Troy Peoples) 담임목사는 사건 발생 장소인 펄스 나이트클럽에서 두 블럭 떨어진 선교센터에서 지내고 있다.

그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주일 오전 5시경 지붕 위에서 헬기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올랜드 지역에서 떠나는 의료 전용 헬기인 줄 알았다. 그러나 곧 지역 뉴스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접할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델라니침례교회의 교인 2천여 명은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한 기도로 주일예배를 시작했다. 피플스 목사는 “우리 교회는 상처받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예배 때 헌혈자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광고를 해서 교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실제로 많은 교인들이 동참했다. 또한 이번 비극으로 인해 고통받은 다양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많은 도움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 같은 필요를 잘 채울 수 있을지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용의자 오마르 마틴(29)은 사건 당시 경찰의 총격에 맞아 숨지기 전까지 사 람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100여 명의 사상자를 냈다. 로이터통신은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경찰과 시민들이 부상자들을 클럽 밖으로 옮겼고, 부상자들은 땅에 몸을 구부린 채 누워 있었다. 현장에는 수십대의 경찰차와 구급차가 대기했다”고 전했다.



© COPTS

“방글라데시, 폭력적 이슬람주의자 5천 명 체포”

소수계 및 사회 운동가 공격...IS 의심자 84명 포함

방글라데시 당국이 소수계 및 사회 운동 활동가를 타깃으로 공격하는 이슬람주의자 5324명을 체포했다고 12일 경찰 대변인이 밝혔다. 그 중에는 급진 이슬람주의자로 의심되는 84명이 들어 있다고 캄를 아산 대변인은 말했다. 나머지 죄질은 가법지만 종교 관련 폭력 전과자들이다.

무슬림이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방글라데시에서 최근 수년 간 이슬람 종교의 절대성을 배제하는 세속주의 지식

인과 비 무슬림 소수계에 대한 야만적 공격이 이어져 국제 사회의 비난과 우려를 샀다. 공격자들은 타깃 인사를 고기 베는 큰칼로 내리쳐 난도질하는 흉포한 수법을 쓰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무신론자 인터넷 블로거 및 해외 지원단 요원 등을 포함 18명이 대부분 대로 상에서 잔인하게 살해됐다. 지난 주에는 힌두 신도 2명이 살해됐다.

하석수 기자

“獨 일부다처·미성년 강제혼인 안 돼”

난민유입 늘어나자...이슬람화 또는 이슬람풍에 대한 우려 작용

하이코 마스 독일 법무장관이 14일(현지시간) 대중지 빌트 인터뷰에서 일부다처제와 미성년 강제 혼인을 강력히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언급은 독일에서 이슬람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난민이 늘자 이슬람화 또는 이슬람풍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다.

마스 장관은 “누구도 자신의 문화적 가치와 종교적 신념을 독일 법보다 우위에 둘 권한은 없다”고 강력 대응의 근거를 밝혔다.

마스 장관은 독일이 애초 일부다처제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이민자에게 예외를 허용하는 등 모호한 점이 있다고 보고 “모든 이가 금지 법 규정을 적용받

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미성년자를 신부로 맞는 결혼도 불법화하겠다고 하면서 강요된 혼인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기사를 인용한 AFP 통신은 유니세프 통계를 인용해 아프가니스탄에선 적어도 한쪽 배우자가 18세 미만인 비율이 전체의 40%라고 소개했다. 독일에는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

또 독일 바이에른주에선 16세 미만 배우자를 둔 난민신청자 사례가 161건 이었고, 18세 미만은 550건이었다고 덧붙였다.

하석수 기자

“IS 女인질들의 힘겨운 투쟁”

IS 성추행 피하기 위해...얼굴에 흠칠하기도 해

IS에게 인질로 잡힌 소녀들과 성인 여성들이 추하게 보이기 위해 얼굴을 흠칠을 하기도 한다고 탈출한 야지디족 소녀가 말했다. 수천 명에 달하는 여자 인질들은 여전히 테러리스트들에게 폭행이나 강간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S 훈련캠프에서 탈출한 15세 아흐메드 야민 코로는 “소녀들과 성인 여성들은 흠 등을 얼굴에 묻히고, 예쁘게 보이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그러다가 들킬 경우에는 맞고 어디론가 끌려갔다. IS 대원은 우리 소년들도 때렸다”고 했다.

코로는 “IS 캠프에서는 남녀 구별 없이 끔찍한 대우를 받았다. 아이들은 동이 뜨기 전부터 일어나야 했고, 이슬람식 기도를 강제로 암송해야 했다. 오염된 물에 씻고, 남은 음식을 먹었다”고 했다.

소년들은 이라크와 시리아의 영토를 유지하기 위해 IS 대원으로 훈련받았고, 소녀들과 성인 여성들은 IS 대원들에게 몸을 팔기도 했다.

지난 2014년 IS가 이라크의 도시를

점령한 후, IS의 훈련캠프에서 소년들은 밤낮 총기 사용법, 백병전·접근전 등을 훈련받았다. 또한 구절을 강제로 암송해야 했으며, 살인 지시들을 받았다.

코로와 어머니는 결국 IS가 탈아파르를 공격하면서 혼란스럽던 틈을 타 탈출을 감행했다. 이들은 50마일(약 80km)이 넘는 사막을 지나, 쿠르드인들의 한 마을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독교인과 야지디족들을 비롯한 소수종교인들은 IS의 지배 아래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다. 성인 남성들은 죽음을 당하고, 소년들은 IS 대원들로 강제 양성되며, 소녀들과 성인 여성들은 성노예로 팔린다.

미국과 유엔 등은 IS가 소수종교들을 상대로 ‘대량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고 했다. IS의 명령을 어길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은 매우 끔찍하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모술에서 19명의 야지디족 소녀들이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기도 했다.

강혜진 기자

“기독교인이 파는 아이스크림은 더럽다”

파키스탄 한 마을에서...기독교인 상인 집단 구타

이슬람을 믿는 파키스탄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기독교인이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판다는 이유로 “더러운 기독교인”이라고 모욕하며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11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일간지 데일리타임스 파키스탄에 따르면 창가방 지역에 살던 카릴 마시(42)씨는 지난 달 17일 동네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팔기 위해 자전거를 끌고 시내로 향했다. 하지만 마을주민 무하마드 파르만과 무하마드 리즈완은 마시씨를 발견하자 그를 향해 ‘쿠라(Choor, 크리스찬을

모욕하는 말’이라고 비아냥거리며 “무슬림 아이들에게 불결한 음식을 팔지 말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를 마구 때렸다. 마을 주민들은 점점 모여들었고 마시씨를 집단 폭행하던 사람의 수는 어느새 스무 명을 넘었다.

주민들은 그의 몸을 마구 때리고 자전거와 아이스크림 매대까지 바닥에 던져 못쓰게 만들어 버렸다. 다행히 목숨을 잃지는 않았다. 결국 마시씨는 사람들이 사라진 후에야 피를 흘리며 동네 인근 경찰서로 향할 수 있었다.

하석수 기자

O.C./앨버틴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새벽예배 월-금 5:3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토 6:3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NEX(한글) 토 9:30AM-10:00PM
대학원(E-college) 주일 2:00PM NEXT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제지훈련(지역훈련) 화-목 7:30PM

김일영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I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www.nextsarang.com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기도회 9: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2부) 1:30pm 금요일기도회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 (다들날) 7:00am
화요일기도회 7:00pm 토요일예배 7:00pm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김영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병의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생가족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원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벤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민경업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교회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헤어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 & Puente)
T.(562)691-0691/F.(562)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성경집회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5:30 (월-금)

남가주 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fcg.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분당 허귀암 담임목사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놀워한인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562)802-4959/C.(714)308-7038/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일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영아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저부, 유·초·중·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9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EM주일 오전 11:30 김일권 담임목사
금요일예배 오후 8시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고현종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8:45 금요일예배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김한오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새벽 행사바기도회 새벽 6:00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9:00 P-lander(Korean) 오전 11:00 이동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Children(1-4) 오전 11:00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Youth(7-12) 오전 11:30
토요일금학교, 에프다스콜 College 오후 1:00

앨버틴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권혁민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 11:30
KMC대학생예배 오후 2:00

앨버틴 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홍성준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원예배 오후 1:30

앨버틴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니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예) 박경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 오후 1:30(청년 영예) 청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0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예)

앨버틴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9:00 & 10:30 김민재 담임목사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 (714)788-3677 / www.ywca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6: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토요일 오전 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림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머무리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목요일성경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 성미예배: 오전 9:00am 금요일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오전 11:00am 새벽기도회: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오전 11:00am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 info@Pottersccc.com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목요일성경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목요일성경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주일 성미예배: 오전 9:00am 금요일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오전 11:00am 새벽기도회: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오전 11:00am

임경남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원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원재 담임목사
수요일예배 오후 8:00

진주전문회사 고베펄사 창립 12주년 기념 진주보석쇼

펄리우드

비쇼 2



진주의 달 6월 맞이 -
한여름 미리크리스마스
선물용 1만여점 전시판매!

한여름 미리크리스마스 특별 할인품목

진주/유색 브로치
reg.\$199-\$299
▶\$59~\$99

진주/유색 반지
reg.\$299-\$499
▶\$88~\$199

진주/유색 팔찌
reg.\$199-\$299
▶\$59~\$99

귀걸이 ▶\$88부터



여성의 우아함을 돋보이게하는
진주 비드 제품 전품목 세일 전시판매!

경제적인 가격대 진주 제품부터 최고급 아코아진주까지 일본공법 한국세공 고베펄 진주비드제품을 만나보세요



고베펄제품은 레이저공법과 수제품으로 서울 강남고베펄공장에서 세공됩니다. 앞서가는 디자인 정교하고 세련된 세공으로 미국 전지역에서 모든 한인여성들에게 인정 받는 고베펄제품 2016년 신제품을 이번 행사에서 만나보세요



6월의 탄생석 진주! 진주전문회사 고베펄이 진주의달을 맞아 1만여점의 진주보석과 유색보석 홍산호 제품등을 대거 전시 할인 판매합니다. 최대할인폭을 자랑하는 6월 진주의달 펄리우드 행사를 놓치지마세요!

한국세공 진주 3중세트
신상품 대거 출시
서울 강남세공 레이저공법



고베펄 펄리우드 진주보석쇼 행사일정안내



아로마센터 일정
일시: 2016년 6월 16일(목) - 17일(금), 2일간
장소: 아로마센터 5층 대연회장
368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가주마켓일정
일시: 2016년 6월 18일(토) - 26일(일) 까지 9일간
장소: 가주마켓 내 1층 특설매장 (웨스턴 + 5가)
450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문의 전화 **323.999.1558**

*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 8시까지 영업합니다.





우리 모두가 즐기는 **공원**

지금은 우리가 공원을 도울 차례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전역의 공원을 우리 가족과 커뮤니티가 매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LA의 높은 인구밀도와 도심의 팽창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공원은 아름다움과 휴식 및 여가활동을 제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그네타기, 농구공 놀이나 수영도 배우고 처음으로 자전거 타기도 배우는 공간이 바로 공원입니다. 또한 공원에서 친구도 만나고 운동도 하며, 특별한 휴가도 즐기고, 영감과 위안을 받습니다.

지금 공원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1992년, 유권자들은 주민발의안A를 통과시켰습니다. 공원을 위해 공공기금을 확보하는 유형의 최초 발의안은 1996년 유권자들이 다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공공기금이 바닥나고, 공원의 화장실, 식수대, 놀이터, 레크리에이션 시설물 등의 보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공원의 보호, 관리 및 개선 가능한 방안을 찾기를 원한다고 조사됐습니다. 우리의 공원을 안전하고 깨끗하며 개방된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면 웹사이트 www.WeAllNeedParks.org를 방문바랍니다.



www.WeAllNeedParks.org



온라인 쇼핑 비즈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한미사랑
 한미사 Zo'e 조애
 Tel:(213)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8th St, #208, LA, CA 90057(8th & Lake St.) (일수토 예약 필수)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원형배너 스탠드포함 \$65 (달리슈팅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탐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시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참가하시는 사역과 사업을 성기도록 하였습니다.

juni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 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서신(심내외, 차량), 제작, 반죽물인쇄 전문
 junimedia.com

교/회/렌/트

200석 예배실, gated 넓은 주차장, 식당
 부엌시설, 유치반, 청년반, 유아반
 일요일 예배, 수요일 저녁 사용 가능 (Fwy 5 & 91근처)
 Tel:(626)203-8008, (562)677-6005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0, 101 Los Angeles, CA 90057

“신문광고 디자인, 100불에 해 드립니다.”
 기간: 6월 9일 ~ 7월 8일

소피아프로덕션 213-264-7899
 www.sophiaproduction1.wix.com/2016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현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제 2의 심장 “발” **[카이로메아]**
 CHIROMEA

발에 대한 무관심으로 깨어진 신체의 내부 장기 및 근 골격계를 이제는 카이로메아로...

인체공학적인 설계
 척추에 미치는 중력을 3방향으로 분산 : 디스크, 관절염 등 척추질환 예방
 지속적으로 용천혈을 자극함으로 기력 증진

카이로메아를 착용하셔야 할 분
 조금만 걸어도 힘이 없거나 발바닥, 뒤꿈치, 무릎 및 허리가 아프다.
 발바닥 또는 특정 발가락에 티눈, 굳은살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성장기 어린이의 기형적 걸음걸이의 균형과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

사용방법
 남녀 구분없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대(L)9 1/2 이상, 중(M)9-6 1/2, 소(S)6 1/2이하

가루간장
 SOY SAUCE POWDER

SOY SAUCE POWDER는 유전인자를 변형하지 않은 콩으로만 만듭니다.

콩이 95% 들어 있어 영양분이 풍부
 No 방부제, No 화학조미료 안심!

골든씰 천연항생제
 Golden Seal

골든씰은 약초중의 약초로서 (KING OF KINGS)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약초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약효를 지녔다. 항생제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사용하며 감기, 폐렴, 신종플루, 독감, 위장질환, 간염, 간경화, 중이염, 방광염, 습진, 백선 등 각종 염증 피부질환에도 좋음. 특히 마약 중독성에 최고의 해독제로도 알려져 있다.

CHARCOAL
 숯가루와 질병 적음

알레르기, 아토피성피부염, 습진에 숯가루 적용
 차콜은 인체내의 독성 성분을 제거
 가정 상비 식품 필수!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치아미백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역!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치질(항문하혈, 통증) •우울증
 •독소제거, 혈관 청소 •관절염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원형탈모
 •불임증(자궁후, 하혈) •만성두통, 요통
 •TMJ 턱관절 장애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체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형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병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PRO-Z USA Inc. 213.434.1170
 미국 공식 판매처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Special Price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강선영 칼럼

표현해야 치유되는 마음의 아픔

연일 일어나는 끔찍하고 처참한 소식들....., 화장실에서 꽃다운 여성이 칼에 찔려 죽고, 학부모들이 이십 대의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하고,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문지마 폭행과 살해 행위들이 여과 없이 방송 화면에서 흘러나오면 온 국민이 충격과 상처를 받는다. 상처를 받고 두려움이 커진다. 집단적인 두려움과 불안이 지상을 뒤덮고 있다.



강선영 대표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왜 이렇게 끔찍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걸까? 처음부터 범죄자는 아니었을 그들이 왜 악마로 변했을까? 그들만 악마라고 지탄할 수 있는가? 우리 내면에 증오와 분노가 들끓고 있다면 악마성이 점점 커지게 될 것이다. '분노조절장애'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무수히 나타나는 것을 보면 참으로 걱정스럽다.

살해와 폭력을 부르는 분노는 상처받은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다! 상처받아 생긴 불안과 분노가 치유되지 않는 동안 분노로 무리지어 폭발하면, 심각한 마음의 병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타인에게 가해를 일삼는 폭력적 분노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이 이 나라에 너무 많다는 뜻이다. 제발 자신의 마음속 분노의 원인을 탐색하고 그 상처를 치유받자. 그리고 화를 내지 않는 온유한 사람이 되자. 분노가 크게 자리잡은 목사님들은 너무 무

섭계 소리지르며 설교한다. 강조하기 위한 단호한 목소리와는 다른 이 분노의 목소리가, 여린 성격의 사람에게 상처와 두려움이 되어 교회 가는 것조차 무서워하게 만든다. 분노가 쌓여 있는 아빠들은 자신의 어린아이들에게 무섭게 소리지르며 상처를 준다. 그것이 아이를 죽이고 있는데도 모른 채 말이다.

온유한 목소리와 말이 가장 치유적이다. 온유함은 가장 위대한 성품이다. 온유한 목소리에 사람은 더욱 끌리고 반응하고 순종하게 된다. 온유한 사람 곁에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치유가 일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 온유함은 치유를 온전히 경험한 사람의 성숙함이 계속되어 마지막에 나타나는 최상위의 성품이기 때문이다.

자살을 부르는 우울증과 같은 마음병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거듭되어야 한다. 이미 생긴 상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치

유를 이루어 갈 수 있다. 너무 오래 되어 검고 딱딱한 암덩어리가 되기 전에 이 방법을 시도해 보자. 마음의 아픔이나 생체기는 서로 그것에 대해 표현하기 시작할 때 풀어져 나 오고 치유가 일어난다.

사람은 상대방이 공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마음을 닫아걸고 적대적으로 변하게 된다.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늘 가까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더욱 섬세한 배려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 가족과의 관계이다. 그러나 대부분 가장 가깝기 때문에 함부로 한다. 부모는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며 함부로 대한다. 그러면 안 된다.

지금까지 혹시 그렇게 살아 왔다면 마음속에 응어리가 많이 쌓였을 것이다. 이 응어리가 우울증이 되고 불안장애가 된다. 이것은 쌓아 두면 응고되고 딱딱한 응어리가 되어 영혼의 병을 부른다. 쑤시고 아픈 암덩어리가 된다. 그래서 그때그때 풀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쌓이지 않게 되고 심리적 병으로도 진행되지 않는다.

누군가 힘들고 아파 보이면 표현하라고 기회를 주자. 공감적 태도로 다가가 말을 걸고, 안심하고 표현하게 하고 풀어놓도록 해 주면 당신은 '위대한 치유자'가 된다.

우리 모두가 신의 은총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며,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채영삼 칼럼

퀴어축제와 교회



채영삼 교수
백석대학교

우리는 자주, 사랑의 문제에서 어긋난다. 어긋나기 쉽다. 사랑처럼 강렬하고 중대한 문제가 없고, 또 이 세상은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어그러진 세상이다. 바른 사랑도 쉽게 뒤틀리고, 처음부터 어그러진 길로 내달리는 사랑도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은,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는데, 사랑은 그치지 않아서, 불처럼 타오른다. 가장 뚜렷하고 결정적인, 그리고 뒤집어진 사랑은 이상승배다. 성경은 그것을 '탐욕'(lust)이라 부른다. 돈이 왕좌에 앉은 사회 속에서 탐욕은 얼마든지 칭송받는 덕목이다. 옛적 소돔과 고모라에서처럼, 우리는 날마다 탐욕에 희생된, 약자(弱者)들의 주검을 목격한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탐욕에서 자유로운가. 교회는 진정 무엇을 사랑하는가. 사랑해왔는가. 탐욕하는 것이 곧 예배하는 것이다.

무엇을 예배해 왔는가.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아닌 것을 탐욕하는 교회를 보아왔는가. 롯(Lot)처럼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고, 단지 자기 가슴을 찢을 뿐이다.

동성애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랑

이다. 마땅히 사랑이 그렇게 흘러가야 할, 다른 방향으로 역리(逆理)로 흘러가서, 사랑이 원래 언제나 열매로 가져오는 그 생명이 아닌, 주검을 향해 가는 자기 파멸적 사랑이다. 심판 받았던 그 도시에 창궐했던 탐욕의 파편, 혼돈

속의 길 잃은 사랑이다. 사랑을 바로 잡는 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신 것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바로 잡으라 하심이다.

교회가 탐욕과 이상승배를 버리고, 세상이 탐욕으로 약자를 죽이는 일을 멈추면, 동성애처럼 길을 잃은 사랑도 빛 가운데서 밝히, 자신의 어그러짐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버지여, 우리의 사랑을 치유해 주소서.

가장 준비하시고 긍휼이 많은 주여, 사랑을 찾아 헤매는 우리 각자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랑의 여정에서 각자가 포함께, 승리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결국, 그 온전한 사랑에 이르게 하소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요일 4:7)

•IVY교육칼럼(4)

지원대학 선택과 전공

지난 1월 뉴욕 타임즈에 실린 글이다. "1974년 나는 형편 없는 SAT 점수를 받은 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집 근처의 체트 커뮤니티 칼리지는 2년제 학교였고, 수업료가 무료였으며, 누구나 입학이 가능했다. 수천명의 재학생에게는 이곳이 콜롬비아이고 명문 솔본이었다. 이곳에서 이수한 학점을 가지고 쉐크라멘토 주립대학에서 영화 전공 과정으로 편입을 했다. 몇 년전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 가서 이곳에서 2년을 보낸 시간이 오늘의 아빠를 만들었다"고 말했었다.

이 이야기는 영화배우 톰 헵크스의 이야기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하고자 하는 목표와 의지가 명문대학을 만드는 것이라는 서론으로 대학 선택과 전공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미국에는 4,000개가 넘는 대학이 있기에 자신에게 딱 맞는 한 개의 대학을 선택하는 것은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여러 개의 대학에 합격

이 되고 난 후에도 학생과 학부모는 큰 갈등에 빠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된다. 컴퓨터 하나를 고를 때도 하드 용량을 살피고 메모리 용량을 살피며 디자인이 좋은 제품을 고른다.

하물며 인생의 가장 중요한 4년의 세월을 보낼 장소이다. 공부도 하고, 식사도 하고, 잠도 자야 하니까. 또 주위 환경과 자녀와의 성향과도 맞는지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

많은 학부모들이 US 뉴스에 나오는 랭킹만 가지고 대학을 결정한다. 랭킹이 아무리 높아도 자녀가 그곳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9학년 때 시간과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된다면 가고자 하는 대학과 전공 리스트를 작성하고 직접 방문하기를 권한다.

유태인 아이들은 13살이 되었을 때 크게 생일 파티를 하면서 조부모, 일가 친척들이 종자돈을 마련해 준다고 한다. 종자돈으로 아이들이 사업도 하고, 재정 계획도 세우는



권셀비 디렉터
아이비 유학

유태인 아이들을 본적이 있다.

한국에서는 돌잔치를 성대히 열어 준다. 사진 한 장을 남기기 위해 많은 돈을 지출하는 걸 본다. 돌잔치에 모아진 축의금이 좀더 보람있게 사용되어지면 좋겠다. 의미있고 뜻있는 첫 번째 생일이 아이에게도 큰 의미가 되는 날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진학하고 싶은 대학을 충분히 조사하고, 진학할 대학의 전공 과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심대들에게는 자신만의 고유한

공부 방법과 기호에 따른 대학 선택이 대단히 중요하다. 커리큘럼이 대학마다 다르고 전공마다 다르기 때문에 학생이 특별한 수업을 해낼 능력이 되는지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지대 학생들이 실패하는 경우도 보았다. 부모가 성공한 치과 의사라 가업을 물려 주기 위해 자녀를 지대에 보내는 경우다. 부모 세대는 경제적 자립과 성공을 위해 억척스럽게 삶을 일구어간 세대다. 반면에 자녀는 돈으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대이다 보니 끈기와 꼼꼼함이 없었다. 결국 치과의사가 되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한 에이전 하지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막연하게 명문대를 동경하는 마음으로 지원서를 작성하지 말고 충분히 최선을 다해 청춘을 보낼 의지가 있는 곳을 선택하길 바란다.

지원자의 관심 분야를 찾아내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고 대학에서는 그 관심 분야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

여야 한다. 또한 그 기회를 이용하여 성공할 가능성을 최상으로 이끌어 주는 곳, 그 곳이 자녀들이 가야 할 대학이다. 이웃들이 얘기하는 최고의 대학을 명문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판단과 용기가 성공의 길임을 명심하길 당부한다.

필자는 하버드대 출신 이정석과 예일대 출신 랄프 베커 대학 입시 전문 상담가와 함께 일한다.

많은 비용을 지불 하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면서 부모가 정한 명문대를 주장하는 경우를 자주 경험한다. 안타깝지만 입시 전문가들도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이다.

이웃에게 "내 아이는 ㅇㅇ명문대 다녀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귀한 아이는 행복하게 최선을 다해 대학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를 자랑하는 부모가 되길 바란다.

*문의: 949-329-8222
*이메일: shelby.moon65@gmail.com



▲콧물빼기 시럽으로 환자가 치료 받는 모습

항상 코가 막혀있고 아침이면 콧물을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체험사례1 9세 여아

콧물빼기를 하니 너무 많은 코가 빠져 나왔다. 환자가 침을 맞으려 하지 않아 발효 한약인 '코편해환'을 복용하면서 1주일에 두번씩 치료를 받았다. 치료 5번이 끝난 후, 환자 부모가 "이젠 저녁에 잠을 잘 때 입을 벌리지 않고 코로 숨을 쉰다"면서 너무 좋아했고, 10번이 끝나자 상태가 너무 좋아졌다.

비염, 축농증

지긋지긋한 콧병 치료는

콧물빼기 치료가 해답!



오랜 시간 비염과 코막힘으로 냄새도 못 맡는 환자

체험사례2 여대생

어릴 때 부터 잠을 잘 때 입으로 숨을 쉬다 보니 아침이면 입이 말라 많은 고생을 했다. 1주일에 두 번씩 내원, 콧물빼기와 침 치료를 병행했고 6번 치료후엔 자신도 모르게 코로 숨을 쉬면서 자게 됐다. 그래도 완전히 고치겠다고 15번정도 내원해 치료를 받았다.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엔 코로 숨쉬는 것이 너무 좋으면서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에 집중이 잘 된다고 했다.

경산한외과병원

3030W, Olympic Blvd., Suite 202, LA, CA 90006(삼호관광몰 2층)
류재규 원장/경산한외과 대학교수 T.(213)380-0853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복새동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추천

다시 교회가 된다

서길원 | 넥서스CROSS | 280쪽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여전히 유효한가? 이 책 《다시 교회가 된다》는 한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 교회됨을 탐구하는 책이다. 저자 서길원 목사는 이 책에서 상계교회의 '부흥' 스토리와 대표적 섬김 사역인 '교회부흥세미나'와 '청소년 기쁨부흥 캠프'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신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2016년 버전으로 기록하고 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크레이그 반즈 | 복있는사람 | 270쪽

450년이 지났으면 '유물'이 되거나 '고물'이 되는 게 당연하건만, 세월이 갈수록 큰 기쁨과 위로를 선사하며 '선물'이 되는 책이 있다. 바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그것이다. 크레이그 반즈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신앙 여정에서 선물처럼 함께한 이 교리문답을 소개한다. 이 책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토대로,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를 통찰력 있게 전달한다.



중국 소수민족 선교를 인도하신 하나님

김성규 | 쿰란출판사 | 264쪽

19년이 넘는 세월 동안 31회에 걸쳐 중국 33개 성과 직할시를 다니며 소수민족 선교를 해 온 김성규 목사의 중국 선교 현장의 생동감 넘치는 간증과 고백을 담은 책이다. 중국대륙 전역을 돌며 선교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건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이다. 세상 끝 날까지 복음의 증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기적이 생생하게 담겨있다.



깨어진 형상

리앤 페인 | 새물결플러스 | 268쪽

동성애의 치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치유에 대해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리앤 페인). 저자는 성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는 뿌리 원인인 트라우마의 기억에 접근하고 그것을 분별하는 기도, 성령께 적극적으로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내담자로 하여금 온전한 삶의 궤도에 오르도록 신실하게 동행하는 치유와 돌봄 사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REVIEW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당신에게 물려주신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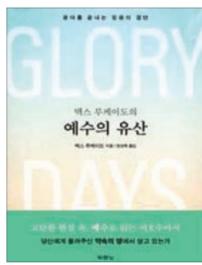
고단한 현실 속... 예수로 읽는 여호수아서

예급과 가나안 사이에 발이 묶인 당신에게 예수가 죽기까지 취하신 '약속의 땅'이 기다린다! 당신의 광야를 빠져나오기로 결단하라!

탁월한 스토리텔링과 공감의 은사로 사랑받는 복음주의 작가, 맥스 루케이도의 32번째 저서이자 최신작, 《예수의 유산》. 따뜻한 면서도 예리한 필치로, 피비린내 진동하는 여호수아서에 심긴 복음의 암호를 해독해 준다. 믿음의 선택이 낳은 이스라엘의 7년 황금기, 그 영광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이 여정은 출애굽(죄로부터의 구원)의 기적을 경험했으나,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며 광야만 맴도는 크리스천들의 안타까운 현주소에서

출발한다. 출애굽의 원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다. 더 늦기 전에 일어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떠나야 한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벧후 1:3). 이 책은 긴박한 여호수아서 스토리를 토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13가지 유산을 소상하게 짚어 준다. 광야를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답답할 수밖에 없나' 고민하는 이들에게, 이미 주신 '약속의 땅'을 받는 여정과 그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법을 소개한다. 각 장 말미에는 <광야를 끝내는 믿음의 결단



예수의 유산
맥스 루케이도
두란노 | 296쪽

> 코너가 나온다. 장별 주제에 따라 '나의 광야', '나의 도하 순간', '내게 약속된 땅'이 무엇인지 체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책의 메시

지가 독자의 일상과 긴밀하게 이어지도록 도와준다.

이 책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실제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똑똑히 확인하라. 그래야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와 '있어야 할 자리'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취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오롯이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를 살리는 그분의 명령이다.

저자 맥스 루케이도(Max Lucado)는 세계적인 복음주의 작가요, 열정적인 설교자, 사랑 넘치는 따뜻한 목회자다. 외롭고, 죄책감

에 시달리며, 상처받고, 낙심한 이들을 위해 글을 쓰고 설교를 한다. 하나님 사랑과 십자가 복음을 독특하고 상상력 넘치는 우화로 풀어내 감성적 필치로 전달하는 탁월한 능력을 지녔다.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에 현대적 감각까지 겸비한 글쓰기로 전 세계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다. 삶의 오랜 여정을 함께한 친한 친구 같은 편안함이 그의 매력이다.

《하나님, 저도 고치실 수 있나요?》, 《믿음 연습》, 《일상의 은혜》(이상 두란노), 《예수님처럼》(복있는사람) 외 다수의 저서가 있다.

이영인 기자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 1-877-580-2424 ☎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추천도서]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십니다”

**한별 목사 신간 <흔드심>
더 큰 사랑 깨달으라고
우리를 흔드시는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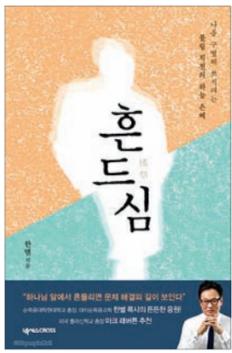
한별 목사(대치순복음교회, 순복음대학원대학교 총장)가 최근 <흔드심>을 펴냈다.

한 목사는 ‘흔드심’이라는 키워드로 구약 민수기 8장의 ‘요제(搖祭·레위인을 흔드는 제사)’와 마가복음 4장에서 풍랑을 만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흔들리는 장면 등을 연결시켜, 성도에게 ‘인생 고난 통과 방정식’을 제시하고 있다.

모태신앙이었던 한 목사는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처럼, ‘자신의 인생이 너무 많이 흔들린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주님이 왜 나를 돕지 않으실까(18쪽)?” 하는 질문이 생겼고, 이 책은 그 과정을 담았다.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 목사는 여기서 재미있는 점 3가지를 발견했다. “첫째는 그들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길이라는 점, 둘째는 순종했는데 폭풍을 만났다는 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함께하시는데 배가 흔들렸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구요.”

이 말씀과 자신의 인생을 대비하던 중, 한 목사는 구약에서 연결고리를 찾았다. “민수기 8장에서 제사장으로서 구별된 레위인에게 사람



흔드심
한별
넥서스CROSS | 220쪽

을 흔드는 의식, 곧 요제를 통과한 다음 봉사하도록 합니다. 희생제물이 아닌 사람을 흔드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를 흔드신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거룩한 제사장(벧전 2:5)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맡기시면서 성도를 흔드실 수 있다는 것. 흔들림이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깊고 넓은 차원으로 이끄시게 위할 수 있다는 말이다.

“천지만물을 만드셨지만 사랑하진 않으셨지요. 천사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다고 그는 강조한다.

“저도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제 기도가 ‘그분’이 아니라 ‘그것’을 구해 왔음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중심축을 바꿔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부족하지만, 제 인생에 흔들림이 없었다면 더 어설픈 목사가 되지 않았을까요?”

“인생은 갑자기 골치 아픈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문제에 떠밀려 방향을 잃게도 되지요. 자기 편에는 똑바로, 빠르게 남보다 잘 가려다가 벽에 부딪혀 주저앉기도 합니다.”

성도는 이렇게 믿는 자들의 삶도 흔들린다는 사실을 거론하는 것 자체로도 은혜를 받는다고 한다. “무슨 해법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를 흔드셨던 이유에 대해 ‘사랑’이라는 대전제만 느꼈을 뿐, 정확히 알 순 없습니다. 인간의 편에서 ‘고난’을 선불리 표현할 수 없지요. 하지만 저는 흔드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요셉이나 욥의 고난도 그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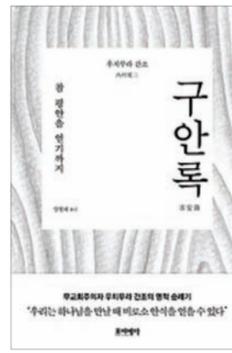
갑작스러운 삶의 고난이나 여러 가지 환난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의 위로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저자는 <흔드심>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선택받았음’을 되새기라고 권하고 있다.

“젊은 리더”로 청년사역에 비전을 품고 있는 한 목사는 러시아 성바울 신학교 학장, 크라이스트앤버서터 제자훈련원장, 한국CCC 선교협력 목사, 미국 UCLA 협력목사, 순복음 부흥사회 실무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대웅 기자

[복소리뷰]

“구원받았다면서, 평안한가?”



구안록
우치무라 간조
포이에마 | 232쪽

학창시절, 우연히 접하게 된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과 다른 소설들, 그리고 그녀가 쓴 ‘길은 여기에’의 연작과 성경 관련 서적들을 보며 그의 신앙 행로를 쫓아가 보게 되었다. 그러다 미우라 아야코의 책을 낸 출판사의 문고 시리즈에 같이 있는 우치무라 간조의 구안록을 접하게 되었다. 그것도 우치무라 간조라는 일본식 표기 대신, 한자로만 內村監三이라고 저자가 적혀 있는 <구안록>으로(당시 미우라 아야코도 三浦綾子라고 저자 이름을 적어 놓기도 했었다).

우치무라 간조의 <구안록>은 내게는 상당히 인상적인 책으로 박혔다. 후에 읽게 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존 버니언의 <천로역정> 만큼이나 신앙의 중심을 건드렸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처럼 청소년 시기의 정서에 한 장의 생각을 더한 책으로 자리했다. 구원이란 말 대신 쓴 ‘구안’이란 표현도 더 독특하게 느껴졌던 것 같다.

저자는 구원이란 피상적 의미일 수 있는 것을 넘어 진정한 평안을 찾아가는 일임을, 그의 책을 읽는 사람이 알기를 바랐던 것 아닐까? 물론 구원이 피상적인 일은 아니다. 하지만 단순히 성경에 대한 문자적 접근이나 관념적 신앙에 대한 접근은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착각 신앙’이나 구원은 받았다 하면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 속에 있을지 모른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교회에서 중직자나 심지어는 목회자로 사역하며 봉사하는 이들 중에도, 또 구원의 확신을 물으면 구원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답하는 이들 중에도 적지 않은 이들이 ‘평안하냐?’고 물으면 주저하는 경우를 꽤나 본다. 그 연유

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들 속에 구원이 주는 복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들이 받은 복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이를 깨닫지 못하거나 묵상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면 평안은 필수적이기에, 구원을 통한 평안을 누리지 못함은 결국 무언

가 있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저자는 구원의 깊이로 들어가도록 독자들을 이끈다. 1부에서 그는 직접 구도하는 자로서 걸었던 신앙의 갖가지 행로의 시행착오를 통해, 구원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것들이 쓸모없고 또 잘못되었는지를 잘 보여 준다. 저자의 그러한 행보는 <천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이 걸었던 것만큼이나 흥미롭고 진지하며 필사적이다.

2부에서 저자는 한 걸음 더 들어가 이제 평안을 얻기 위한 과정과 방법을 보여 준다. 저자가 일종의 변증법적 접근을 하는 것이, 지금의 독자들에게 시대적 간극 때문에 약간은 원론적으로 비칠 수도 있을 수 있다. 깊이 있는 사색이나 진지함보다는 감각적이고 가벼움을 추구하는 문화 속에서는 지루하고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오히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저자의 진지함과 몸부림이 아닐까 한다. 독자의 귀를 간질거리게 하는 많은 신앙서적 아닌 신앙서적들은 상처를 가리는 반창고를 붙여 줄지 모르지만, 정작 그 병을 치료하는 길로 이끌지는 못할 수 있다. 또 영접기도는 드려도 주님 앞에서까지 무거운 짐을 계속 지게 하는 그리스도인을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 속에 구원이 주는 복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들이 받은 복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이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면 평안은 필수적이기에, 구원을 통한 평안을 누리지 못함은 결국 무언

가 있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저자는 구원의 깊이로 들어가도록 독자들을 이끈다. 1부에서 그는 직접 구도하는 자로서 걸었던 신앙의 갖가지 행로의 시행착오를 통해, 구원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것들이 쓸모없고 또 잘못되었는지를 잘 보여 준다. 저자의 그러한 행보는 <천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이 걸었던 것만큼이나 흥미롭고 진지하며 필사적이다.

2부에서 저자는 한 걸음 더 들어가 이제 평안을 얻기 위한 과정과 방법을 보여 준다. 저자가 일종의 변증법적 접근을 하는 것이, 지금의 독자들에게 시대적 간극 때문에 약간은 원론적으로 비칠 수도 있을 수 있다. 깊이 있는 사색이나 진지함보다는 감각적이고 가벼움을 추구하는 문화 속에서는 지루하고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오히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저자의 진지함과 몸부림이 아닐까 한다. 독자의 귀를 간질거리게 하는 많은 신앙서적 아닌 신앙서적들은 상처를 가리는 반창고를 붙여 줄지 모르지만, 정작 그 병을 치료하는 길로 이끌지는 못할 수 있다. 또 영접기도는 드려도 주님 앞에서까지 무거운 짐을 계속 지게 하는 그리스도인을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문양호 목사
크리스찬북스 편집위원

한신대 출판부, 종교·역사·IT도서 신간 3권 출간

한신대학교(총장서리 강성영) 출판부가 종교도서 ‘사회적 개신교와 디아코니아’, 역사·문화도서 ‘한반도의 운명을 바꾼 전투’, 컴퓨터·IT도서 ‘똑딱! 나만의 모바일 포트폴리오 앱 만들기’ 등 3권을 새롭게 출간했다.

신학과 강원돈 교수가 저술한 ‘사회적 개신교와 디아코니아’는 디아코니아 실천 체계를 제도적으로 총괄하는 독일개신교회협의회 사회봉사국이 탄생하기까지의 역사를 개관하고, 협의회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사회복지 활동의 이념과 조직원리를 분석한 책이다.

강원돈 교수는 “국내 교회복지 활동을 활성화하고, 교회복지와 국가복지를 연계시키는 모델을 사회·윤리적으로 연구하는 데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조교양대학 김준혁 교수가 저술



디아코니아
한신대 출판부

한 ‘한반도의 운명을 바꾼 전투’는 삼국시대부터 구한말까지 발생한 주요 전투에 대해 저술한 책이다. 전투로 인해 바뀐 나라들의 운명, 영웅의 탄생, 민중들의 삶을 저자 특유의 필치

로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김준혁 교수는 “전쟁은 대부분 백성들의 삶을 모조리 앗아가는 것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며 “우리 민족에게 다가오는 희망(통일)의 거대한 흐름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이 땅에 분열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는 마음에 책을 집필했다”고 설명했다.

컴퓨터공학부 박성진 교수가 저술한 ‘똑딱! 나만의 모바일 포트폴리오 앱 만들기’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HTML5 언어를 활용한 모바일웹페이지와 앱 만들기를 상세히 저술한 책이다. 특히 IT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학생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제작됐다.

모바일 앱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나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책이다. 이수민 기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도운동종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모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여름학기 학생모집

여름 학기
2016년 6월 20일(월)~8월 26일(금) 수업
(여름학기 등록마감 6월 20일까지)

본 기독교 복음선교 연합총회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주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를 진리와 경건이란 학훈을 가지고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2016년 봄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p>모집 부문</p>	<p>신학 대학교 신학과(BA) - 4년 / 126학점</p> <p>신학 대학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M.Div. 교역학 석사 과정 - 3년 / 96학점 2) M.A. 석사과정 - 2년 / 48학점 3) Th.M. 신학 석사 과정 - 2년 / 48학점 4)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3년 / 48학점 5) Th.D. 신학박사 과정 - 3년 / 56학점
	<p>일반 대학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교사 과정 - 2년 / 56학점 2) 평신도 지도자과정 - 1년 / 36학점 3) 평신도 성경학교 - 6개월 / 12학점 4) 채플린 과정 - 소정 과목 5) ESL 과정 - 1년 6) 유치원 교사 및 원장 과정 - 1년
	<p>홈스쿨링</p> <p>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정과 교육의 문제의 대안으로 크리스찬 홈스쿨링 교육을 전문으로 지원합니다. 크리스찬 홈스쿨링은 크리스찬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통합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성경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미주 크리스찬 신학대학교의 홈스쿨링은 무너진 가정과 교육의 회복을 위해 앞의 본질을 앞세우고 제자도를 실현하기 소망하는 가정들의 결단과 헌신을 격려하며 견고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p> <p>*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기독교식 홈스쿨링 방식으로 교육학 박사들과 교사들이 전문 지도합니다.</p>

* 입학 첫학기 등록 학생들에게는 80% 장학금을 드립니다.
*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과 과정 중 50%는 인터넷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 본 학교는 분기별(쿼터제)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Christian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in America (CTCS)

(213)999-6884(대표전화), (213)272-6031, (213)235-6889

Asian American Christian Leaders Convene at the Capital

BY RACHAEL LEE

Some 80 Asian American Pacific Islander (AAPI) Christians in various sectors gathered at Washington, D.C. for Korean Churches for Community Development (KCCD)'s ninth annual Lighting the Community Summit from June 6 to 8 at the Kellogg Conference Hotel at Gallaudet University.

The LTC Summit gathers members of the Christian AAPI community each year and is a mix of networking, informative sessions, and advocacy. It features workshops on funding opportunities, sessions on particular social issues, and for the past two years, participants also went to the White House for a White House briefing. This year, attendees instead participated in Congressional briefings with Congressmen Ed Royce and Charles Rangel.

"We as AAPI Christian leaders have been active through evangelism, global missions, and direct service. Yet our voice and presence have been missing at the local and national front due to marginalization and our own disengagement," stated the summit organizers. "As a result, our communities have been underserved and overlooked in services and resources."



Asian American Pacific Islander (AAPI) Christians in various sectors gathered at Gallaudet University for KCCD's 9th Lighting the Community Summit. (Photo: KCCD)

Several issues were discussed during this year's summit, including navigating religious freedom rights in the midst of the dialogue on sexuality issues, immigration, and mental health, among others. Regarding recent legislations and activism regarding LGBT issues, speakers urged the attendees to take them as new opportunities to show love to LGBT and the greater community.

But the need for activism and civic engagement — to "show up" — was the running theme throughout the conference, particularly as

presidential elections are coming up later this year. A panel during the second day especially focused on this issue, with panelists Chris Kang, the national director of The National Council of Asian Pacific Americans (NCAPA); Mee Moua, the president and executive director of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Floyd Mori, the president and CEO of the Asian Pacific American Institute for Congressional Studies (APAICS); Christine Chen, the founding executive director of APIA Vote; and Richard Lui, journalist and news anchor at

MSNBC.

Congressman Charles Rangel also commended the summit attendees on continuing to come to D.C., and reminded them of the importance of continuing their engagement with the community.

"For them to publicly acknowledge that you as the church — you have power, and for them to say that to the Asian faith community, that's powerful," said Hyepin Im, the CEO and president of KCCD.

Meanwhile, three college students and four high school students joined the summit as "young

ambassadors," a program which KCCD has offered to allow students to experience civic engagement and to meet mentors in various fields.

"There's a greater interest in social justice among younger Korean Americans," Im explained. "If we could invest in this for the next 10 years — it will be a new day. Because we have a lot of interest in the community but we don't have that platform yet. So I believe that as we continue investing in this, a new day will arrive for our community."

SOON Movement's Student Missionaries Prepare to Share the Gospel

BY RACHAEL LEE

Korean American college students in the campus ministry 'SOON Movement' (formerly known as Korea Campus Crusade for Christ) are preparing to go overseas for summer mission trips once again.

This year, some 280 students across the U.S. have committed to go on mission trips through SOON Movement and students from the L.A. region will be leaving to their respective mission fields on June

23. Students from New York, Boston, Atlanta, San Francisco, and Chicago have already started their ministries in various countries including Cambodia, Thailand, Japan, Mongolia, and others.

Students in the Los Angeles region attended the send-off service that took place at Dong Shin Presbyterian Church on June 12, a service that takes place each year with the students, families, and staff before they take off to their mission fields. SOON Movement's field national director Young Lee preached

during the service on Matthew 9:35-38, and urged the students to follow Christ's example in keeping Scripture at the center, and sharing the gospel with prayer and passion.

Students will be trying something new this year in evangelism. "As the generation is changing, college students all over the world are using the media, tablets, and smartphones. We are preparing tools to share Christ's gospel in an even more effective way through those outlets," SOON Movement stated in a press release.



Students prayed for one another at the send-off service that took place on June 12 at Dong Shin Presbyterian Church. (Photo: SOON Movement)

'How Do I Start the Process of Reaching an Unreached People?'

BY RACHAEL LEE

Many missionaries may feel convicted to go and share the gospel to an unreached people group in a different country, but may feel lost as to how to prepare for such a task and how to actually do ministry once there. How should the research on the region and people group be conducted? How does engagement work once a missionary arrives?

In an elective seminar part of the Korean World Mission Conference, which took place from June 6 to 10, Paul Eshleman, the founder of the JESUS Film Project and director of 'Finishing the Task' Movement, shared his thoughts on the first steps missionaries and churches could take to begin engaging an unreached people group.

First, Eshleman encouraged the group of about a dozen Korean missionaries at the seminar to first take what he called a 'survey trip' to the location they were interested in to confirm that this is the group that they would like to commit to. Taking the survey trip also allows them to meet potential partners in local churches, Eshleman said, and to confirm whether what they have been learning about the region from afar is actually true.

He also encouraged the missionaries to see if there are churches or ministries in their current local areas that are of the indigenous

culture they are trying to reach. For example, if a missionary who currently resides in Los Angeles was interested in engaging with the Kahar people group of India, he or she could first check if there are any Indian churches or ministries in Southern California with members and leaders that speak Gujarati.

Such an approach allows missionaries to become more familiar with the indigenous culture, and check any personal biases or prejudices that they may have, Eshleman explained.

JESUS Film founder Paul Eshleman shares tips on taking the first steps to engage an unreached people.

"Find a church that's close to you with that indigenous culture," Eshleman said, "and build a relationship with them so that you can partner with them in reaching that unreached people group."

"Ask this new partner to strategize with you on how to reach that people group -- if you try to do it

on your own, you'll use your own biased way to approach them," he added.

He also suggested them to research and see if there are any indigenous coalitions of churches or mission organizations that are already working to reach that people group. If there is, these organizations would already be a few steps ahead and could offer valuable support and guidance in terms of how to reach that people group.

Once that new indigenous and local partner is found, Eshleman recommended signing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with that partner, which would detail the roles of both the indigenous partner, and the missionary-sending church or organization. Some details that could be written in the MOU include the requirements for recruiting new workers in the mission field, the salary of the workers, and what each party will provide, for example.

Finally, Eshleman shared some thoughts on what the missionaries could do once they arrive at the mission field.

"Imagine that you have finally arrived after all of your preparation," Eshleman posed. "What do you do first? I think I would pray. Just walk around the village and pray over the land."

Then, the missionaries should gauge how the gospel should be shared to the people. Is there a Bi-



Paul Eshleman, founder of the JESUS Film Project and director of the 'Finishing the Task' Movement, shared his thoughts on engaging an unreached people group.

ble translated in their language? If not, resources such as StoryRunners and the OneStory Partnership could help develop a written translation, provide audio recordings, or train missionaries to orally tell Bible stories in the indigenous language.

From there, missionaries could begin personal evangelism by visiting homes and communicating the gospel. Those who receive the gospel could then be discipled and taught how to study the Bible, and as the movement grows, small groups and house churches can be formed.

"If you would like to use the JE-

SUS Film to do some wide-spread sowing but there is none available in the indigenous language, let us know," Eshleman said. The cost to translate the JESUS Film in a new language is about \$38,000, but several businesses subsidize about \$19,000 of the cost.

Meanwhile, the seminar was quite interactive, as Eshleman provided the missionaries with the most recent list of unengaged, unreached people groups found by the Finishing the Task Movement, and missionaries were able to share questions and ideas regarding reaching the people groups they were interested in.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4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Sunday Services: 11 AM & 12:30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Mourners at Washington, D.C. held a vigil on behalf of the victims of the recent Orlando shooting incident. (Photo: Ted Eytan/Flickr/CC)

Church Leaders Mourn Orlando Victims

In the wake of the shooting in Orlando that killed 50 on Sunday morning, church leaders expressed grief over one of the worst massacres that occurred in the U.S.

The shooting began approximately at 2 AM on Sunday at a gay nightclub called Pulse, and resulted in a three-hour standoff. The gunman, who was also killed in the standoff, claimed allegiance to the Islamic State.

Several prominent Christian leaders across the nation took to the Internet to express grief, as well as how they interpret the meaning of the gospel to apply in such circumstances.

"Praying, Mourning, Grieving," wrote Eugene Cho, pastor of Quest Church, on Facebook. "The deadliest mass shooting in modern United States history. Each person created in the image of God. Lord, in your mercy..."

Cho posted again on Monday afternoon, with a link to a Wall Street Journal article detailing the stories of 49 victims who were identified.

"49 names. 49 victims. Real people. Real stories. All and each created in the image of God. May we learn a glimpse of their stories. May our hearts not grow numb and desensitized to the real violence in our world - including to the LG-

BTQ community," he wrote.

"Let it be said again. Through tears. Followers of Jesus lay down their lives to save others, not to slaughter," wrote John Piper, founder of Desiring God, on Facebook on Sunday afternoon.

"While politicians debate guns and terror, the church can be clear on this: there is a Savior, and he calls us to love our neighbors," tweeted Kevin DeYoung, author and pastor of University Reformed Church.

"My prayers are with the many victims and family members who lost loved ones in the senseless shooting -- now being called an act of terrorism -- at a gay nightclub in Orlando early this morning," said Franklin Graham, the CEO and president of Samaritan's Purse and the Billy Graham Evangelistic Association. "Life is precious, and we only have one chance to live our lives here on this earth."

"It is with deep sadness I read of the heartless and cold-blooded killings planned and implemented in Orlando, Florida by a cruel mind. How can any rationalizing justify that in any mind? How tragic for the parents, how ruthless of the killer," Ravi Zacharias, founder and president of Ravi Zacharias International Ministries, wrote in a blog. "As

a nation we mourn this loss. All of them are in our prayers at RZIM. We stand with the families in this time of grief. 'Lord please help us to be wise on how we speak of or treat our fellow human beings! We need You more than ever.'"

"What a terrible tragedy. Orlando, our hearts and prayers are with you. #prayfororlando," wrote Joyce Meyer, author and speaker, on Facebook.

"Our hearts grieve with all the family and friends of those affected by today's tragedy in Orlando," said Miles McPherson, pastor of The Rock Church in San Diego. "May America's most deadly shooting be matched by America's most focused prayers for peace and unity."

"When we're accustomed to seeing news in real time on our television screens and on our phones, it is sometimes easy to forget the news we are viewing is real. At least fifty people -- created in the image of God -- were slaughtered in cold blood," wrote Russell Moore, the president of the Ethics &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on his blog. "Families who were waiting to see their loved ones are finding out today that they will never see them again in this life. That ought to drive us to mourn."

Ohio School District Files Lawsuit Over Federal Directive on Bathrooms

A central Ohio school district is suing the Department of Education over the recent federal directive which compelled schools across the nation to allow students to use bathrooms, locker rooms, showers, and overnight accommodations in line with their gender identity rather than birth gender.

Alliance Defending Freedom filed a lawsuit against the Department of Education on behalf of Highland Local School District in Morrow County which faces a civil rights complaint of discriminating against a transgender elementary school student who is biologically male but identifies as female. The school serves low-income families, and if it does not comply with the directive, it may lose about \$1 million in grants that are used to improve teaching quality, provide free lunches, and cater to special-education needs, according to the Alliance Defending Freedom.

The school allowed the student to use staff restrooms and opened up the option to other kids in the class as well.

The school started addressing the student as a female since 2012 when

the student was starting first grade, on the request of the student's legal guardian. However, the student was not allowed to use the girl's bathroom starting in second grade.

The lawsuit says that the Department of Education, one of the federal agencies which issued the directive regarding bathroom use, is violating the privacy rights of a majority of students.

"Schools have a duty to protect the dignity, privacy, and safety of all students. This is precisely what Highland Local School District has done," ADF Senior Counsel Jim Campbell said. "Despite that, the Department of Education is attempting to strong-arm Highland into complying with a lawless demand to open its single-sex overnight accommodations, locker rooms, showers, and restrooms to students of the opposite sex. The DOE is trying to redefine a federal law that only Congress can change."

Emily LeVan, the child's mother, had filed a Title IX complaint against the school board. The district had until the end of this month to allow the

transgender student to use the girl's bathroom. The school says that federal funding should not be held back for not letting locker rooms and restrooms to be used by students of the opposite sex.

"I am very frustrated that they're using school resources, they're wasting school resources. They are risking losing that federal funding so that they can have a license to discriminate," LeVan told 10 TV.

The Office for Civil Rights (OCR) asked the school to permit the transgender student to use the girls' restroom even after the district said that such a step might compromise the privacy rights of other students.

"As a result, Highland faces an impossible choice: capitulate to Defendants' demands and sacrifice the dignity and privacy rights of their students; or protect those rights and watch Defendants strip away more than a million dollars each year in federal funding devoted to special-education programs, lunches for underprivileged children, and educational advancement," the lawsuit states.

California 'End of Life Option Act' Takes Effect

California has become one of five states to allow terminally ill patients to end their lives when they have less than six months to live, and are mentally fit to take the medicine.

The law is expected to increase three folds the number of terminally ill people around the US who can now choose to die.

The bill was signed into legislation by Governor Jerry Brown in October, which took effect on June 9.

"I do not know what I would do if I were dying in prolonged and excruciating pain. I am certain, however, that it would be a comfort to be able to consider the options afforded by this bill. And I wouldn't deny that right to others," Brown said.

The patients, above the age of 18, will have to give one written and two oral requests at least 15 days apart, and provide a proof of mental competence to be able to take the lethal medicine.

The new law was lobbied for by the family of a Californian woman, Britany Maynard, who suffered from an aggressive form of brain cancer, and moved to Oregon, where assisted sui-

cide is legal, to end her life last year.

Many of the medical, disability, and religious groups remain opposed to the bill, including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Instead of participating in assisted suicide, physicians must aggressively respond to the needs of patients at the end of life. Patients should not be abandoned once it is determined that cure is impossible. Multidisciplinary interventions should be sought including specialty consultation, hospice care, pastoral support, family counseling, and other modalities," AMA writes about its policy on its website.

"Patients near the end of life must continue to receive emotional support, comfort care, adequate pain control, respect for patient autonomy, and good communication," it continued.

Other organizations that oppose this law include: Californians Against Assisted Suicide, American College of Pediatricians, American Geriatrics Society, California Family Alliance, California Catholic Conference, California Disability Alliance, Berkeley Commission on Disability, and Autistic Self Ad-

vocacy Network.

Californians Against Assisted Suicide released a statement in which 32-year-old Stephanie Packer, suffering from a terminal illness said, "Unfortunately this vote sends a message to people like me that suicide is a preferred option."

Disability groups say that sick patients might be led into physician assisted deaths by uncaring relatives to avoid high medical costs and insurance deficits.

Religious groups say that the state's poorer communities will be the most pressured group to take the lethal medicines as a way out of expensive long-term care.

"Lawmakers did not have any chance to consider the deeper issues raised by end-of-life care in the state - the cost of treatments, especially the cost of cancer medications; insurance practices that limit access to hospice care and physicians' options in providing adequate pain relief; the impact of this legislation on the poor and other underserved populations," Los Angeles Archbishop José Gomez wrote in an online op-ed.

Sunday Services: 9 AM & 11:15 AM
Children's Ministry: 9 AM & 11:15 AM
Youth Group Service: Sundays at 11:15 AM

PASTOR KEITH PARK

Church of Southland

1380 S. Sanderson Ave, Anaheim, CA 92806
T. (714) 209-7349 / churchofsouthland.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 10:45 AM
Children's Ministry Services: 9 AM & 10:45 AM
Youth Services: Sundays at 9 AM, Wednesdays at 6:30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0:45 AM

PASTOR TIM PARK

Evangelical Free Church Diamond Bar

3255 S. Diamond Bar Blvd, Diamond Bar, CA 91765
T. (909) 594-7604 / www.efreeb.org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to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Ministry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org

Sunday Services: 9:45 AM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org

Sunday Services: 10: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0:30 AM, 12:15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2:15 PM

PASTOR KIWON SUH

New Life Vision Church

407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323) 373-0110 / www.nlv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yncca.org

차종에 따라
72개월까지
0%이자가가능

PH
PuenteHillsHyundai
SUPER STORE

Father's Day & 졸업시즌 특별SALE

"THE EXCITING APPEAL OF ELANTRA SPORT"

NEW
2017 HYUNDAI
ELANTRA SE

Lease It For **\$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19,260**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Signing, \$50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6 HYUNDAI
SONATA SE

Lease It For **\$8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2,875**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Signing, \$2,75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DESIGN RENEWED BY INNOVATION"

NEW
2016 HYUNDAI
TUCSON SE FWD

Lease It For **\$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115**

24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1,500 Lease Cash, \$1,000,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7 HYUNDAI
SANTA FE SPORTS 2.4 FWD

Lease It For **\$11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6,470**

24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1,250 Lease Cash, \$75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찰리 정
626.513.4981



스티브 장
626.723.3336



저스틴 길
626.723.3584

HYUNDAI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Assurance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